



# 청년생활

195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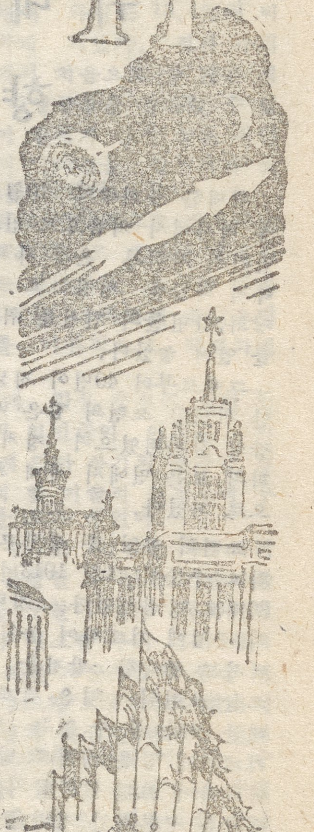
표지 1면 : 레닌 공청 제3차 대회 대표들과 담화하시는 레닌 동지

2면 :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건설된 평방 정방 직장의 일부

# 청년생활

1957 11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 차 례





# 위대한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온갖 사회적 및 민족적 억압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와 평화, 인민들의 친선을 위한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위대한 쏘련의 힘은 비할바 없이 장성 강화되였으니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되였다.

쏘련의 공업 총 생산고는 혁명 전 최고 수준의 해인 1913년에 비하여 30배로 장성하였다.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에 기초하여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오늘 쏘련의 농업은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 규모적인 기계화된 집단 경리로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쏘련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근본적인 전변을 가져왔으며 쏘련은 선진적 과학 기술과 고도로 발전된 문화를 소유한 나라로 되였다.

위대한 쏘련이 사회주의 10월 혁명 후 달성한 이와 같은 성과는 비단 쏘련 인민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쏘련은 오늘 국제 혁명 력량의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쏘련의 위력의 장성 강화는 쏘련을 중심으로한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며 그것은 바로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영광스러운 일원으로 되고 있는 우리 나라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맞는 우리들은 한사람 처럼 위대한 쏘련을 무조건 지지 옹호함과 동시에 쏘련이 달성한 성과를 자기의 성과처럼 기뻐하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 나라, 강력한 공업과 농업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적인 과학 기술과 문화를 가진 나라, 사회주의 대 가정의 중심으로 되고 있는 나라 쏘련을 따라 배울 결의에 충만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맑스—레닌주의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들은 자기의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위대한 쏘련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쌓아 올린 고귀한 성과들과 경험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령도 밑에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낳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쌓은 쏘련의 풍부한 경험에서, 그리고 원수들의 발악적 침해로부터 세계 최초의 로동자, 농민의 국가인 쏘베트 조국을 지켜 낸 영웅적 쏘베트 인민들의 애국주의와 영웅주의에서, 또 위대한 쏘련이 달성한 과학, 문화의 찬란한 성과에서 언제나 배웠으며 또 배우고 있다.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이 자기의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기여한 전략 전술의 기본은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과 자기의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 조선의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은 10월 혁명이 가져다 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민족 해방 투쟁의 옳바른 길을 찾았으며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따라 배우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방 후 조선 인민들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인도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해방 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쏘련이 사화주의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들을 받아 들여 우리 나라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락후한 식민지 공업을 자립적 공업 체계로 전변시켰다.

그리하여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이 1944년에 전체 공업 생산고 중에서 찾이하는 비중이 겨우 1.6%였었는데 1956년에는 17%로 장성하였으며 방직 공업은 1944년에 6%였던 것이 1956년에 와서는 18.4%의 비중을 찾이하게 되였다. 결과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수 많은 새로운 기계 시설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적 산업의 편파성을 현저하게 퇴치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 경리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우리의 농촌 경리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놓았으며 식량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였다.

국제주의에 항상 충실한 쏘련 인민들은 우리 인민들이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 마다 자기의 풍부한 경험과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로써 우리 인민들을 도와 주었다.

해방 후 우리는 경제를 복구하며 그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들과 관리 일'군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청소한 우리 나라 경제 일'군들은 쏘련 기술자들의 성심 성의로 되는 방조와 또 그에서 열성적으로 배운 결과 지금에 와서는 현대적 대 기업소들을 능히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의 젊은 기술자들은 생산에서 곤난한 기술적 문제들을 쏘련 기술자들의 방조 밑에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현대적 생산 시설과 기계들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자체로 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쏘련의 고귀한 경험과 방조는 우리의 민족 문화 개화 발전과 우리 나라 문화 혁명 수행에 큰 역

할을 하였다.

우리가 달성한 이와 같은 성과들은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와 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로력의 결과이며 동시에 쏘련이 달성한 성과에서 꾸준히 배운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초병인 쏘련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투쟁 경험과 외래 침략자들로 부터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발휘한 쏘련 인민들의 고상한 애국주의와 불굴의 영웅성은 항상 우리의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다.

독일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청년 근위대》원들과 원쑤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마뜨로쏘브를 비롯한 쏘련 청년들의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그리고 반혁명파의 가혹한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를 용감하게 수호한 쏘련 인민들과 청년들의 고귀한 투쟁 경험은 우리의 산 모범이 였으며 힘이 였으며 등대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자기의 명절처럼 맞는 우리들은 쏘련과의 친선 단결과 쏘련을 향하여 배우는 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쏘련의 풍부한 경험과 그의 거대한 물질적 및 정신적 원조가 없었던들 우리는 얼마나 고난에 찬 길을 걷게 되였을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지나온 력사적 경험은 쏘련을 향하여 배우지 않고서는 그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함이 없이는 경제 및 문화의 성과적 발전을 기할 수 없으며 민족적 독립과 자기의 전취물을 원쑤의 침해로부터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 남반부가 아직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으며 원쑤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악랄한 파괴, 암해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고한 사업은 혁명의 매개 계단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어데서나 항상 선진 경험들을 허심하게 배울 줄 알아야 하며 우선 무엇보다도 위대한 쏘련을 향하여 배워야 한다.

위대한 쏘련 인민과의 친선 단결을 보다 강화하며 그를 향하여 배우자! 이것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맞는 우리의 신성한 구호이다.

우리는 계속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경험을 배워야 하며 쏘련 인민들이 발휘한 고상한 애국주의와 쏘련 인민들이 달성한 위대한 과학 문화의 성과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쉽게 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미제를 조국 강토에서 물러가게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보다 촉진시키는 거대한 담보로 될 것이다.

전체 청년들이여!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자! 위대한 쏘련을 향하여 계속 꾸준히 배우자! 그리하여 조선 로동당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자!





# 10월의 길

박 승 수

지구가 생겨나서 몇 천만년이냐
인간이 태여나서 몇 백만년이냐
아득히 흘러나린 세월의 물줄기,
인류의 력사는 몇 만년이냐

그 많은 세월의 고개에
얼마나 많은 자연의 봄이 오갔든가,
허나 참된 인류 사회의 봄은
40년 전, 레닌이 가져왔어라.

그 많은 세월의 언덕에
몇 만번 자연의 태양은 솟았든가
허나 참된 행복의 태양은
40년 전, 10월에 솟았어라.

10월의 대로 우를 40년,
레닌의 기치 높이 전진한 나날에
지구의 절반은 승리의 령마루에
　　올랐고
사회주의 해'발 아래 살고 있어라.

로동당의 뒤를 따라 나의 조국도
10월의 길을 당당히 걸어왔다.
조국의 륭성과 인민의 행복 위해
우리는 영원히 레닌의 길을
　　걸어가리.

우리는 걸어가리, 레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리, 10월의 길을—
그것은 자유와 행복의 길이기에.
그것은 투쟁과 승리의 길이기에.

1957,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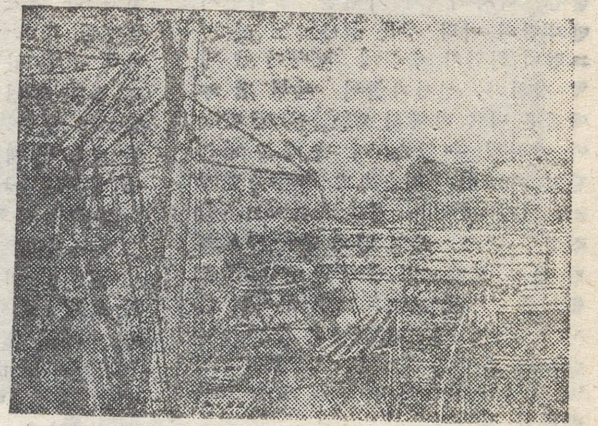
# 위 대 한 4 0 년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고하는 순양함 《아부로라》의 포성이 울려 퍼진 그때로 부터 만 40년이 흘러 갔다. 이 40년은 수천년의 인류 력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지구의 면모에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발생하였으며 수억만 사람들의 생활 역시 일신 되였다.

그러나 세계사적 변화를 가장 뚜렷이 구현하고 있는 나라는 위대한 10월의 첫 산아인 쏘련이다.

혁명 전 짜리 로씨야는 전 세계 공업 총 생산량의 2~3%밖에 찾이하지 못한 하나의 락후한 농업 국가였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날 쏘련은 전세계 공업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공업 국가이다. 1917년 부터 1957년 기간에 쏘련의 공업 총 생산량은 54배로 장성되였는데 같은 기간에 미국은 겨우 3배, 영국과 불란서는 근근 2배 밖에 더는 증가되지 못하였다. 특히 위대한 레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방법이라고 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부문에서 쏘련은 40년 간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1913년~1957년 기간에 생산 수단의 생산이 74배, 그 중 기계 제조 및 금속 가공 공업은 무려 200배, 전력 공업은 100배 이상이나 장성되였다. 공업의 기술적 장비에 있어서도 쏘련을 앞설 나라는 세계에 없다. 현재 쏘련은 공업의 기계—자동화 수준으로 보아 세계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탄, 전력 생산 부문은 거의 다 기계—자동화 되였다) 자동 생산선과 기타 새로운 생산 설비의 생산량이 제일 많으며(다만 1956년에만 하여도 650종의 새로운 기계 기구들이 다량 생산되였다) 수력 발전소 건설 규모가 가장 광범하고 송전선의 길이가 제일 길며 (세계 최대의 브라뜨쓰크 수력 발전소를 포함하여 현재 70여개의 대 화력 및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공업의 설비 리용률이 가장 높다.(례컨대 같은 용광로에서 쏘련은 미국 보다 평균 25% 더 많은 선철을 생산하고 있다)

농촌 경리는 40년 간에 어떻게 변화되였는가? 짜리 로씨야 시대에 농업은 분산적이고 소규모적인 것이였으며 농업 기술이란 지극히 원시적인 것이 였다. 례를 들면 1913년 농촌에서 사용되는 동력은 농업 로동의 1%밖에 대행하여 주지 못하였으며 소맥의 단위 당 수확량은 미국의 3분지 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옛'이야기 꺼리로 만 되였다.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기계—전기화된 대 꼴호즈—쏩호즈 국가이다. 그의 파종 면적은 계통적으로 장성되여 왔는데 특히 최근 3년간 3천590만 헥타 (우리나라 북반부 총 파종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는 광대한 처녀지 및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취하여진 결과에 40년 간에 전체적으로 보아 약 50% 그 중 소맥 파종 면적은 2배 (전세계 소맥 파종 면적의 4분지 1을 차지하고 있다) 공예 작물은 1.7배 면화 및 사탕무 재배 면적은 2배나 장성되였다. 현재 쏘련의 농촌에는 157만 7천대 (15마력 환산) 의 뜨락또르, 38만 5천대의 꼼바인, 63만 1천대의 화물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농업 생산 능률이 비약적으로 장성되고 있는데 례를 들면 1929년부터 1953년에 이르는 기간에 그것이 쏘련에서는 매해 평균 6%씩 제고되여 왔다면 미국에서는 단지 2%씩 늘어 왔을 따름이 였다. 따라서 농산물의 여러 부문에 걸쳐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수확을 내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쏘련에서는 자기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기록적인 풍수확을 거두었다. 즉 소맥 생산량만 보더라도 1953년에 비하여 63%나 증가되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는 15%, 카나다에서는 12%, 영, 불, 서부 독일에서는 각각 13%의 소맥 생산이 감소되였다. 쏘련은 모든 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에 있어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맥 총 생산량은 이미 미국과 카나다의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쏘베트 정권 년간에 면화 생산량은 5배나 장성 되였고 사탕무와 마령서 생산량도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축산물이 발전하고 있는데 쏘련 인민은 지금 인구 1인당 우유 및 빠터 생산에 있어서 1958년까지에, 육류 생산에 있어서는 1960년 이내에 미국의 수준을 따라 잡고 앞서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르꾸쓰크 수력 발전소의 건설 광경

쏘련의 존재 40년 간에 쏘련 인민들 속에서는 가장 위대한 문화 혁명이 수행되였다. 혁명 전 짜리 로씨야는 문맹의 나라였다. 지금 쏘련에는 문맹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미 7년제 의무 교육제, 중요 도시 및 로동자 거주 구역들에서는 10년제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다.

지금 쏘련의 경제 문화 부문에서는 620만 여명의 고등 및 전문 교육을 받은 일'군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혁명 전의 30배에 달한다. 쏘련의 과학이 세계의 최고봉에 올라 섰으며 가장 위력한 힘을 가졌다는데 대하여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쏘련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인공 지구 위성이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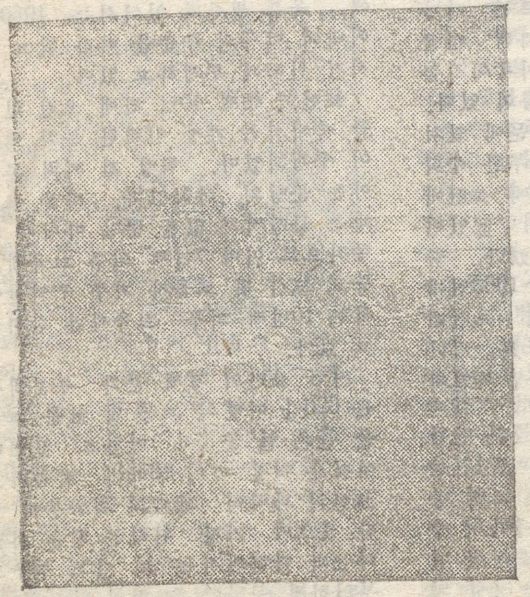
만사람의 머리 우를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허위와 중상에 리력이 난 미국 정치가, 선전가들이 어찌 잠꼬대같은 미국 과학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버릴 수 있으랴! 다 아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장 강력한 싱크로파조트론을 건설한 것도, 제일 먼저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우수한 분사식 항공기를 가진 것도, 또한 원자력 전자 계산기, 반도체 기구와 같은 과학 발전의 특출한 성과를 평화적 목적에 광범히 리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쏘련인 것이다.

쏘베트 문화의 찬란한 개화는 보건 위생 사업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혁명 전 로씨야에는 주민 1만명 당 평균 1명의 의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17명, 즉 미국 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가 일하고 있다. 완전한 치료 예방 제도가 확립된 결과에 쏘련 인민의 평균 수명은 쏘베트 정권 40년 간에 약 배로 연장되였으며 인구 사망률은 미국 불란서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의 수준 보다 현저히 낮아 졌다.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따라 쏘련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혁명 전에 비할 바 없이 개선 향상되였으며 또한 계속 꾸준히 제고되고 있다. 례를 들면 쏘련의 국민 소득은 1913년～1956년 기간에 인구 1인당 평균 13배 (미국은 겨우 2배 미만) 장성되였다. 쏘베트 국가는 주민들의 직접적 복리 향상을 위하여 해마다 더욱 많은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 및 기타 인민의 직접적 복리를 위하여 배당한 것만 하더라도 주민 1인당 평균 1천 루블리씩이나 해당된다. 최근 18년 간 주민들의 경공업 및 식료 공업 제품 구매량 장성 속도에 있어서도 역시 쏘련은 세계 제1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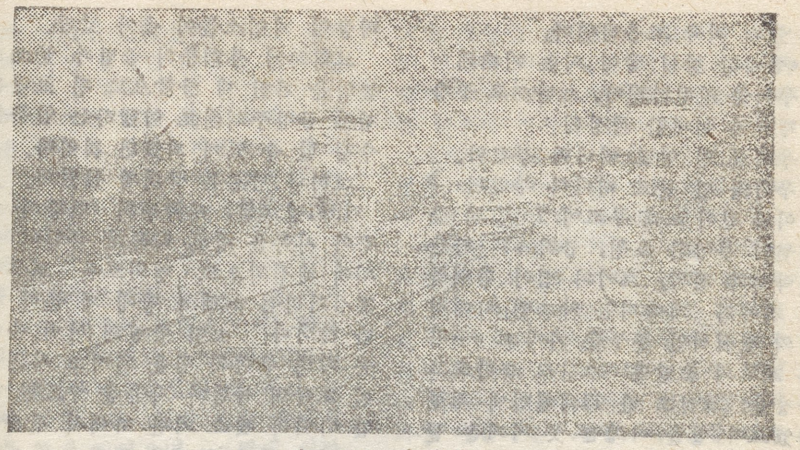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하여 지나간 40년 간에 쏘련은 락후로부터 진보에로 일대 비약을 하였으며 인민들의 가장 행복한 지상 락원으로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10월 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생활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쏘련 인민의 전투적 전위대이며 지도적 력량인 쏘련 공산당의 통일 단결된 강대한 위력에 대한 가장 명백한 표현으로 된다.



※레닌 명칭 끄라스노다르꾸반 꼴호즈에서





* 모쓰크바 운하

× × ×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나간 40년간 쏘련 인민이 아무러한 난관과 애로도 없이 이와 같이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결코 아니며 무수한 희생을 겁내지 않고 온갖 간난 신고를 용감히 극복함으로써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그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고 또한 쟁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월 혁명 승리 직후 쏘련 인민이 경제와 문화가 황폐화된 땅 우에서 그리고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14개의 외래 제국주의 무장 간섭자들과 국내 반혁명 도당들이 덤벼든 환경하에서 세계의 첫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하고 고수하여야 하였다는 사실을 회고하여 보라. 그때 붉은 전사와 혁명적 로동자 사무원들은 하루에 겨우 50내지 150그람의 빵을, 지어는 며칠씩 굶으면서도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았던가! 전세계 근로 대중의 수령 레닌께서도 추운 동삼에 난로 없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다.

1918년～1920년 공민 전쟁을 승리적으로 종결시킨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끊칠새 없는 간섭, 파괴, 암해 공작과 뜨로쯔끼, 지노비예브, 부하린 등 반혁명 분자들의 온갖 책동은 통일되고 단결된 공산당과 그 주위에 하나로 뭉친 쏘련 인민의 강력한 힘 앞에 걸음마다 파탄되고 말았다. 쏘련 공산당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였다. 공청원들은 공산당원들과 함께 항상 쏘련 인민의 선두에 서서 공산당의 정책을 적극 지지 옹호 하였으며 그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당이 공청원들과 쏘베트 청년들을 수백 개소의 대공업 기업소 건설에로 불렀던 제1차 5개년 계획 (1929년～1933년)시기를 례로 들어 보자. 35만명의 청년 남녀

가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위대한 강이 굽이 치는 기슭에
우리는 건설하련다, 뜨락또르 공장
행복과 위대한 리상이
우리를 먼 길로 떠나라 부른다.
우리를 먼 길로 떠나라 부른다…》

이와 같이 노래 부르며 7천명의 공청원이 무연한 초원, 급작스레 만든 바락크와 천막, 모기와 뱀이 덤벼들고 기아가 계속되는 악조건 하에서 거의 원시적인 공구를 가지고 구라파 최대의 쓰딸린 그라드 뜨락또르 공장을, 그것도 단 11개월만에 건설하였으며 살을 어이는 듯 차거운 물속에 들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암석을 부수고 제방을 쌓면서 드네쁘르 수력 발전소를 세워 놓았다. 《우리들은 하루 종일 일했다. 밤에는 조명등이 건설장을 밝히였고 야간 교대는 일을 멀 하려 하지 않았다… 토역 공사는 심한 추위가 건설장의 진 흙탕을 얼어 붙게한 그런 때에도 중단되지 않았다……그러나 돌같이 굳어진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내야만 하였다. 공청원들은 로요 로동을 선포하였다. 모두가 다 열렬한 투사였다. 엄동 설한 속에서 공청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고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발이 꽁꽁 얼고 손'가락에는 감각이 없어 졌으나 한사람도 이 전선에서 물러 나서지 않았다》고 꾸쯔네쯔고 야금 꼼비나트 건설에 대하여 당시 기사장이였던 월사 바르진은 회상하고 있다. 역시 그와 같은 영웅적 로력에 의하여 마치 전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인적 미도의 흑룡강반에 공청 도시 《꼼쏘모르쓰크—나—아무레》가 나타 났고 계획을 초과하여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1천5백 개소의 대공업 기업소들이 솟아 났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업과 꼴호즈 농업을 가진 대 강국으로 된 쏘련은 점차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난관은 끝치지 않았다.

1941년 6월, 제국주의 렬강의 고무와 사촉을 받은 히틀러 독일이 불의에 배신적으로 평화로운 로동에 흥성거리는 쏘베트 땅에 처 들어 왔던 것이다. 쏘련 인민의 어깨 우에는 거의 단독의 힘을 가지고 사회주의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팟쑈 기반 하에서 신음하는 많은 나라 인민을 해방하고 인류와 문화를 파멸로 부터 구원하여야 할 무거운 짐이 부담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레닌의 나라 인민들은 조곰도 겁내지 않았으며 무수한 희생을 무릅쓰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이 력사적 임무를 가장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그 시기에 희생된 700만명 이상의 쏘련 사람들과 조야·꼬스모제미얀쓰까야, 마뜨로쏘브, 크라스노돈의 청년 근위대원들, 까스쩰로, 스미르노브 등 영생 불멸의 젊은 영웅의 이름은 전투적 공훈에 빛나는 수백 수천만 쏘련 인민의 이름과 함께 진보적 인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지지 않을 것이다.

× × ×

바로 이와같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첩되는 애로를 돌파함으로써 오늘 쏘련 인민은 인류의 최고 리상인 공산주의를 지평선 우에 환히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언덕의 절정에 올라서게 되였던 것이다. 동시에 바로 이 때문에 쏘련이 세계 평화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선도적 력량으로서



전세계 수억만 인민들로 부터 깊은 신임과 가장 열렬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쏘련 인민 특히 쏘베트 청년들은 조곰도 자만 자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 건설이 최대의 긴장성과 혁명적 정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쏘련은 레닌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제 사회주의의 횃불로서, 전 세계 모든 근로 대중의 모범으로서》 확고히 서있는 나라이다. 쏘련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제 기본 원칙들이 처음으로 현실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였으며 쏘련에 의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인류의 오랜 희망이 처음으로 실현을 보게 되였다. 그뿐만 아니라 쏘련 인민은 다른 나라 인민들도 하루 속히 자기들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선두에 서서 항상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그들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와 지지를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진정한 애국자들의 숭고한 의무로 된다.

위대한 10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쏘련과의 친선을 더욱 강화 함으로써 모든 힘을 조선 로동당이 가르킨 길—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에 바치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업, 즉 인류 해방을 위하여 바쳐 싸울것—이것이 위대한 40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

(로 철)

## 쏘련은 로동 생산 능률 장성에서 세계 제1위

쏘련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선진적 경험의 일반화 및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는 등,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을 위한 온갖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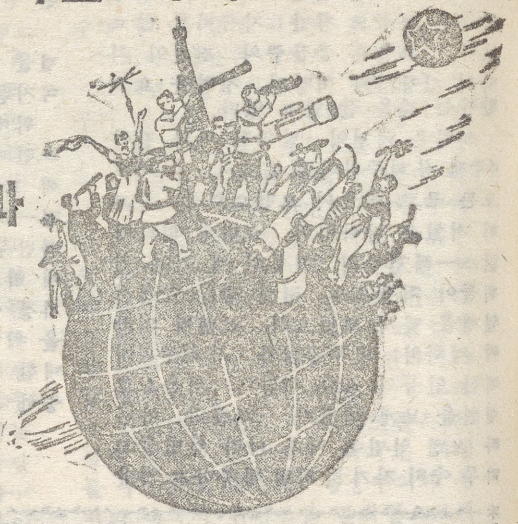
이리하여 오늘 쏘련에서는 로동 생산 능률이 체계적일뿐 아니라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쁘라우다》의 보도에 의하면 1956년에 쏘련의 공업 분야에서의 로동자들의 년 평균 로동 생산 능률은 1913년에 비하여 약 9배로 장성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쏘련에서는 로동 시간이 계속 단축되는데도 역시 이 수준은 높아가고 있다.

로동 생산 능률 장성 속도에 대한 다음의 통계가 실증하여 주는 것 처럼 쏘련은 오늘 로동 생산 능률 장성에서 영국, 불란서 뿐만 아니라 미국을 훨씬 앞서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 쏘련 | 미국 | 영국 | 불란서 |
|---|---|---|---|---|
| 1913년 | 100 | 100 | 100 | 100 |
| 1937년 | 318 | 135 | 113 | 129 |
| 1940년 | 422 | 150 | 105 | 114 |
| 1950년 | 580 | 185 | 124 | 127 |
| 1956년 | 약900 | 224 | 138 | 184 |

# 쏘련이 이룩한 과학 기술의 거대한 성과



오 민 성

쏘련은 세계에서 과학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미국 지배층은 거만하게도 과학 기술 분야에서 마치도 미국이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이 허장 성세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들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부득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쏘련이 미국 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러면 이제 쏘베트 과학 기술의 발전 모습을 몇 개 부문을 들어 찾아 보기로 하자.

**쏘베트 과학 기술의 거대한 발전상은 우선 과학 기술 인재들과 과학 연구 시설의 급속한 장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짜리 로씨야에는 불과 105개의 대학이 있었으며 거기에서는 12만 7천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쏘련에는 767개의 대학이 있으며 여기에서 2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쏘련의 대학생 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 들의 대학생 총수의 약 2 배나 된다.

10월 혁명 후 시기에 쏘련에서는 850만 명 이상의 기술자가 양성되였다. 현재 쏘련의 과학 일'군 수는 23만 9천명에 달하는바 짜리 로씨야에는 약 1만 명의 과학 일'군 밖에 없었다.

쏘베트 과학의 총참모부인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기관이다. 이 아까데미야는 120개소 이상의 연구소, 독립적인 실험소 및 기상대와 12 개소의 지부를 자기 산하에 가지고 있다.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의 예산은 혁명 전 시기에 비하여 약 7백 배로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쏘련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가장 많고, 가장 훌륭한 과학 기술 일'군들과 과학 연구 시설들을 갖게 되였다.

**쏘련은 인간 로동의 기계—자동화 수준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쏘련 공산당의 올바른 경제 정책의 결과로 지난 40년 간에 쏘련의 기계 공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금년에는 쏘련의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제품 생산량이 1913년에 비하여 2백 배로 장성되게 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쏘련에서는 1천 5백개 이상의 자동 생산선 및 흐름식 생산선들이 제작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 공정의 기계—자동화 수준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재 쏘련에서 생산되고 있는 선철의 약 95%와 강철의 85%는 가열 장치가 자동화된 로들에서 생산되고 있다. 생산이 완전히 자동화된 개개의 생산 공정, 제호 및 공장이 속출되고 있다.

례로서 울리야노브시에 있는 자동차 부속품 공장을 들 수 있다. 이 공장에서는 자동차 피스톤을 제작하고 있는 데 원자재인 알미늄을 용해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완제품을 포장 하조하는 데 이르기까지 전혀 사람의 손이 가지않고 모든 작업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다만 사람이 각종 측정기, 계기, 조절 및 신호 장치들이 설치되여 있는 조종대 앞에 앉아서 기계들에 지령을 내리며 그의 작업 상태를 감시하다가 기계 고장이 생길 때 그를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 온 공장의 작업 모습은 텔레비존 장치에 의하여 먼 곳에 앉아서도 손금 보듯 들여다 볼 수 있으며 만약 기계의 어느 부문에 고장이 생기면 자동 신호기에 불이 켜지면서 인차 알 수 있게 되여 있다.

공업 뿐만 아니라 오늘 쏘련의 농업도 그의 기본 작업은 거의 완전히 기계화되여 있다. 특히 최근 년간에 와서는 일련의 농산 작업들의 종합적 기계화가 광범히 실현되고 있다. 실례로 알곡 추수 탈곡 작업을 들어 보자. 우선 꼼바인이 알곡을 거두어 통에 담으면 그것이 자동차에 실려 탈곡장에 운반되며 탈곡장에서는 계량, 해하, 적재, 건조, 정선, 선별, 운반 등 작업을 죄다 기계로 수행한다. 그리고 한편 밭에는 추수한 꼼바인의 뒤로 각종 기계들이 따라나가면서 곡초를 거두어 쌓으며 그 뒤로는 뜨락또르가 추경을 실시한다.

사람의 육체 로동 뿐만 아니라 정신 로동도 또한 기계화되여 가고 있다. 즉 전자 계산기 및 번역기들은 사람을 대신하여 복잡한 계산 및 번역을 수행한다.

례로서 고속도 전자 계산기 《베·예쓰·엠》을 들어 보자. 이 기계는 1초 동안에 7천 내지 8천 건의 산수 문제를 계산해 낸다. 이러한 계산기는 사람이 해내자면 2년이나 걸려야 할 복잡한 계산 문제를 단 두시간 동안에 수행할 수 있다.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는 분야에서도 쏘련은 단연 세계 모든 나라들을 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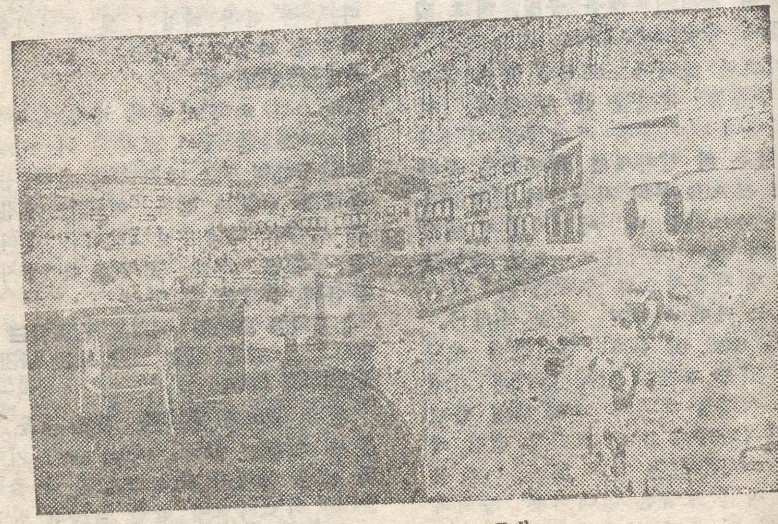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쏘련은 제6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세계 최대의 것을 포함한 총 출력 250만 키로와트에 달할 원자력 발전소들을 건설할 것이다.

쏘련의 야금 공업 부문에서는 원자력을 리용하여 용해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서도 로벽의 침식 상태를 언제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였으며 실험실을 거치지 않고서도 로내의 용해물에 불순물이 어느 정도 함유되여 있는가를 수시로 알아 낼 수 있게 되였다. 또한 《자뽀로쥬쓰딸리》야금 공장에서는 방사성 동위 원소 측미계들을 압연기에 설치하여 압연되는 강판들의 두께를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함으로써 오작품을 종전 보다 절반이나 감소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쏘련의 야금 공장들에서는 감마선을 금속 제품의 내부에 존재하는 흠집을 발견하는데 리용하고 있다. 감마선은 두터이 5백 미리 메터 이상의 강철판을 투시할 수 있는 데 이는 금속 제품의 질을 제고함에 거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쏘련에서는 지금 원자 발동기를 설치한 기선과 기관차 제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자 기선이나 기관차는 막대한 량의 석탄 대신에 불과 몇 키로 그람의 원자 연료를 가지고서 계속하여 수만, 수십만리를 갈 수 있을 것인바 원자 기선은 세계의 모든 대양을 일주할 수 있으며 원자 기관차는 7만 5천리를 달릴 수 있다.

원자력은 쏘련의 농업에서도 리용되고 있다. 례컨대 《단부》 쏩호즈에서는 표식 원자 비료를 사용하여 추파 밀은 정당 376—420키로그람씩 증수하였다. 또한 쏘련에서는 오이, 홍당무, 호배추 종자를 이온화 방사로 처리하여 파종함으로써 10—20%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원자력에 의해 인간을 대량적으로 살륙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때 쏘련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원자력이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즉 쏘련의 의료 일'군들은 오늘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각종 질환을 진단하며 치료하기 힘든 암 및 기타 악성종양과 안결막 및 안각막 암과 각종피부병 등 여러가지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성과적으로 리용하고 있다.



쏘련의 핵 연구소의 조종실

원자력은 인민의 일상 생활에도 광범히 리용되게 될 것인바 얼마 전에 쏘련의 기사들은 원자 시계를 제조하였다 이 시계는 3백년 동안에 다만 1초가 늦어지거나 빨라질 정도로 그 성능이 우수하다.

평화적 목적에의 원자력의 리용 분야는 매우 광범한바 쏘련의 학자들에 의하여 오늘 그것이 급속도로 널리 개척되여 가고 있다. 인류는 지금 원자 에네르기의 시대에 확신성 있게 들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이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리용되는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오늘 쏘련은 로케트 공학과 우주 정복을 위한 사업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봉을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

쏘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케트 려객기를 생산하였다. 쏘련의 로케트 려객기 《뚜—104》 호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은 그가 수립한 세계 기록들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최근 《뚜—104》 호는 20톤의 화물을 싣고 1만 1천 8백메터의 높이에 오름으로써 지금까지의 세계 기록을 훨씬 돌파하였다. 지금까지 륙상 비행기가 세운 세계 기록은 15톤 166키로 그람의 화물을 싣고 2천메터의 높이에 오른 것이였다. 비행 속도에 있어서도 《뚜—104》 호는 빛나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였는바 이 비행기는 5천 5백리의 거리를 실로 13 분52.7초 동안에 날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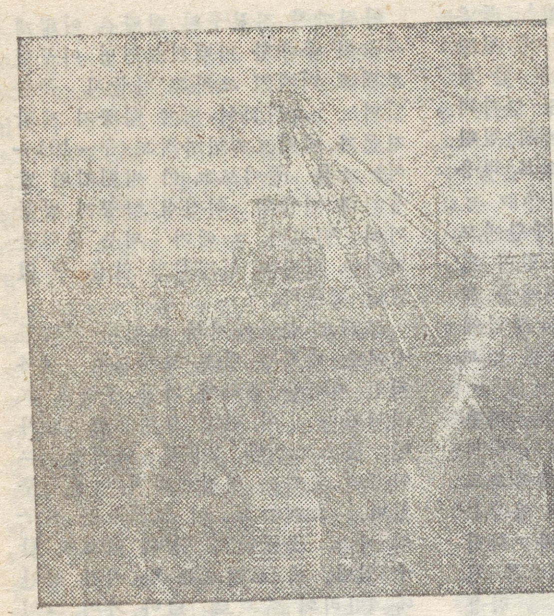
아직까지 자본주의 렬강은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는커녕 아무런 로케트 려객기 조차도 만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항공기 제작 전문가 쎄베르스끼까지도《뚜—104—아》 호를 돌아보고 이 비행기의 발동기가 미국의 최신식 항공기 발동기에 비해서 그 배가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로케트 분야에서의 쏘련의 거대한 성과는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성과적인 시험을 통하여 가장 뚜렷이 표시되였다. 이 탄도 로케트는 발사한 곳으로부터 2만리 내지는 그 이상에 달하는 지점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로케트는 지구의 어느 곳에라도 능히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로케트는 한 시간 동안에 4만리의 속도로 날아 가며 그의 최대 고도는 3천 2백리이다. 이와 같은 속도와 비행 고도를 가진 탄도 로케트를 막아 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모름지기 그런 수단을 찾아 내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쏘련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이는 평화의 강력한 무기이다. 이 탄도 로케트는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는 세계 평화에 대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여 주는 반면에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쏘련에서 위력한 초장 거리 탄도 로케트의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후 지난 9월 25일 미국은 탄도 로케트 시험에서 두번째의 실패를 하였다. 미국에서 발사한 로케트탄은 1마일도 올라가지 못하고 폭발되였다.

오늘 쏘련은 원거리 사격 로케트



민쓰크의 뜨락또르 공장

중거리 사격 로케트, 근거리 사격 로케트 등 필요한 모든 로케트들을 가지고 있다. 쏘련 로케트의 위력은 지난 10월 4일 그가 중량 83.6 키로 그람에 달하는 인공 지구 위성을 실로 2천 2백 50리 높이의 상공에까지 운반하였다는 사실로써 다시 한번 뚜렷이 표시되였다.

쏘베트 과학의 이 위대한 성과에 대하여 지금 천 세계가 경탄해 마지 않고 있다. 세계의 량심 있는 수억만 사람들은 이 력사적인 위훈에 대하여 쏘련 인민과 쏘련 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층은 아연 실색하고 있다.

쏘련은 국제 지구 물리학 년도 간에 수개의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을 계획하였는바 또다시 11월 3일에 과학적으로 더 완성된 두 번째의 위성이 발사되였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까지도 인공 지구 위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성도 쏘련에서 이미 발사한 것에 비하여 훨씬 작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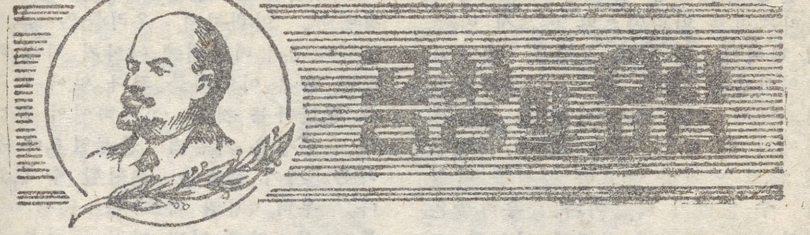
그리하여 오늘 미국과 기타 자본주의 국가 출판물들까지도 이구 동성으로 20세기의 경쟁에서 미국이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였다.

10월 혁명 후 40년 간에 쏘련이 달성한 이와 같은 거대한 과학 기술적 성과는 그 규모로 보아서나 발전 속도로 보아서 가장 발달한 어느 한 자본주의 국가라도 결코 이룩할 수 없었으며 또 이룩할 수 없는 그런 성과이다. 이는 오직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령도되며 과학 기술이 착취자들의 수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것이 전적으로 인민에게 복무하는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쏘베트 과학 기술의 거대한 성과에서 우리 인민들의 광명한 미래와 승리에 대한 신심을 일층 확고히 하고 있다.







에브그•게르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1918년 7월에 뻬뜨로그라드, 모쓰크바 및 우랄 로동 청년 동맹 조직들은 전로 로농 청년 대회 소집 준비 위원회를 내왔다.

1918년 10월 29일 저녁 제 1차 대회가 개최되였다. 《제 1차 전로 로농 청년 동맹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라는 말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우러 나왔을 때 대표들과 수많은 손님들은 얼마나 큰 환희에 들끓었던가.

주석단 선거에 착수하였다. 한 청년이 일어 섰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을 대회의 명예 의장으로 추천할 것을 제의합니다!》하고 그는 흥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에 회장은 폭풍과 같은 박수와 수령을 축하하는 환호 소리 그리고 《인터나쇼날》의 우렁찬 노래로써 그의 제의에 대답하였다.

× ×

쏘베트 국가를 지도하는 거대한 사업에 분망한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은 대회에 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레닌은 대회의 사업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웨. 이. 레닌의 초청으로, 주석단 성원들로써 구성된 공청 대회 대표단은 대회의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사랑하는 수령의 지시와 충고를 받기도 하기 위하여 그가 계시는 크레믈리로 갔다. 이 론설의 필자도 레닌을 방문하는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될 수 있는 큰 영광을 지니였다.

우리가 크레믈리로 출발하던 9월의 흐린 날, 합숙 경리부에서는 예비 식량이 죄다 떨어져서 대표들에게 늘 주어 오던 부족되는 량의 쌀보리 건빵마저도 줄 수 없었다. 우리는 뜨거운 맨물을 마시고 길을 떠났다.

웨. 이. 레닌과의 상봉을 앞두고 가장 순결하고 흥분된 감정에 가득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심한 시장기를 느꼈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 하여야 하겠다. 인간의 연약성을 억제 못한 나머지 우리들은 자기 호주머니의 총 재산을 털어 모아 루반까 거리 한모퉁이 (지금은 제르쥔쓰끼 광장)에 있는 녀자 상인에게서 거이 옹군 한 덩이나 되는 흘레

브를 샀다.

홀레브를 꽁꽁 씹으면서 우리들은 울라지미르 일리이츠와 반드시 이야기 하여야 할 모든 문제를 열렬히 토의하면서 걸어 갔다. 우리들은 대표단의 이름으로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 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어느새 크레믈리에 당도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몇분 지나서 우리들은 벌써 레닌의 접대실에 있었다. 그러나 레닌은 사업에 분망하였다.

우리들은 그만 약속한 시간 보다 늦게 당도하였는데 수령의 시간은 엄밀하게 째이여 레닌은 다른 사람을 받아 들였다. 하는 수 없이 우리들은 기다려야 하였다. 늦은 탓으로 포찌예바 (레닌의 비서로 사업하고 있던) 동무에게서 창피를 당한 우리들은 구석에 물러가 몸을 움추리고 빽빽히 모여 서서 우리의 《전권 대표》에게 마지막 훈시를 귀'속말로 속삭이였다.

별안간 사무실 문이 열리자 레닌이 누구를 바래면서 미소를 띠우고 우리 켠을 바라보더니 《아, 젊은이들이 왔군》하면서 들어 오라고 청하였다. 레닌은 우리 대표 한사람 한사람과 친절하고도 상냥하게 인사를 나눈 뒤 우리를 책상 둘레에 편안히 앉혔다.

이렇게 우리는 드디여 레닌을 만나게 되였다. 우리 앞에는 보기에 별써 평범하고 소박하며 마치 육친같이 가까운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혁명의 수령이며 쏘베트 국가의 수뇌자이며 전 세계 근로자들의 스승인 위대한 사람인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그만 당황해져서 레닌에게 이야기 하려 하였던 좋은 이야기를 죄다 잊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고백하여야 하겠다. 심장은 기쁨에 들끓었으나 우리는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 《전권 대표》는 덧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여민 다음 떨리는 목소리로 떠듬떠듬 하면서 《친애하며 존경하는 레닌 동지!》하고 말을 떼였다. 그러나 말은 어로써 중단되였다. 《전권 대표》는 우리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알아 채자 몇번 에헴 에헴하고 헛기침을 하고 나서 《친애하며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일리이츠…》하고 다시 말을 시작했으나 끝내 아주 입을 다물고 말았다.

레닌은 우리들의 기분을 감촉하고 롱담과 질문으로 우리들의 긴장된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 처음으로 탄생한 절로 공산주의 청년 조직의 목적과 과업에 대해서와 우리 나라에 창건된 쏘베트 정권과 새로운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근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자유롭고 활기 있는 담화에로 슬며시 끌고 갔다. 레닌은 각 주들에서 자기 대표들을 빠짐 없이 대회에 참가시켰는가, 농민 청년 대표는 많이 참가했는가, 현존하는 동맹들의 구체적 활동은 무엇인가, 국외의 프로레타리아 청년 조직과 그들의 투쟁과 련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레닌이 대회의 대표들 가운데 처녀들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었을 때 짜샤 배리몬쓰끼는 벌떡 일어나서 《네, 아홉 젭니다…》하고 보고하였다. 모두들 웃었으나 누구 보다도 소리 높이 자지러지게 웃은 것은 레닌이였다. 웃음이 멎자 조용한 틈을 타서 나는 (아홉개가 아니라 아홉 사람…)이라고 베리몬쓰끼의 말을 시정하여 주었다. 레닌은 빙그레 웃더니 《녀성들은 사람하고도 어떤 사람들이라고》하고 정색으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우리가 프로레타리아 투쟁에 로동 녀성들과 농민 녀성들을 더 광범히 인입하면 할수록 새로운 제도의 승리는 보다 신속하고 보다 믿음직하게 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레닌은 근로 녀성 청년들을 동맹에 인입시킬 데 대하여 특별히 고려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였다.

담화는 끝날 무렵이 되였다. 우리 《전권 대표》는 갑자기 활기를 띠고 엄숙한 연설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그의 말을 앞질러 우랄 로동자 쏘르빈에게, 로동 청년들이 사격 련습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는가 하고 물었다. 《전권 대표》는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동맹은 공산주의 명칭을 붙였습니다…우리들은…》하고 다시 말을 시작 했다.

레닌은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말하였다.

《동무들, 문제는 명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산주의 청년 동맹 맹원들이 자기 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그 명칭을 확증하는데 있습니다. 동무들, 지금 얼마나 가혹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이 투쟁은 한량 없는 고통과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지요, 쏘베트 정권과 근로자들을 반대하여 로씨야의 백파군 뿐만 아니라 지어는 전 세계의 부르죠아지 까지도 나섰습니다. 우리들은 기아와 경제적 재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문맹과 비문명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무거운 유산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적이며 이와 같은 모든 것은 극복하여야 합니다. 쏘베트 정권과 우리가 반드시 건설하여야할 사회주의 사회에 당신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들의 과업은 새로운 생활을 위한 투사들의 첫 대렬에 서 있는 것입니다》하고 레닌은 자기의 말을 끝마쳤다.

우리들과 작별하면서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우리들에게 잡지 《청년 인터나쇼날》몇 권을 주면서 국제 청년 동맹과 조속히 련계를 가질 것을 충고하였다. 레닌은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갑자기《동무들의 재정 형편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어 보았다. 《아직은 돈이 없습니다》하고 우리들은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자리에 앉아서 전로 집행 위원회 위원장 야꼬브 미하일로위츠 쓰웨르들로브에게 미래의 공청 중앙 위원회 조직 사업을 위하여 재정 1만 루블리를 내줄데 대한 제의를 종이 쪽지에 써보냈다. 포찌예바 동무가 들어와서 웨. 이. 레닌에게 무어라고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레닌은 머리를 아래우로 끄덕거리고 나서 《오분 후에 그를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하시오…》하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갈 때가 되였다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닌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찬찬히 보더니 한쪽 눈 모서리에 미소를 띠우면서 《젊은이들, 식사나 하지?》 하고 따뜻하게 물었다. 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먹구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우리 표정은 다른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레닌은 야꼬브 미하일로위츠 쓰웨르들로브에게 《제 1차 전로 청년 동맹 대회의 주석 단원 11명에게 점심을 대접하시요》라는 또 한장의 쪽지를 썼다.

레닌의 이런 친절성과 사람들에 대한 그의 심중한 배려는 우리들을 감탄케 하였다. 용기와 기쁨에 찬 우리들은 전국 로농 청년 대회를 통해서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헌신적 로동과 공적에 대한 레닌의 강령적 훈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레닌의 곁을 물러나왔다.

1919년에 공청은 벌써 전체 로농 청년들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출현하였다. 당과 레닌은 이 조직에 프로레타리아의 후대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할 것과, 로동과 교육의 분야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국가적 요구를 해결함에 참가시킬 것을 위임하였다. 1919년 3월에 소집된 제 8차 당 대회는 《청년들 속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라는 자기의 특별 결정에서 당의 후비대로서의 공청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대회는 로씨야 공산주의 청년 동맹에 가장 세심한 물심 량면의 사업적 원조를 줄 것을 전 당에 호소하였다.

우리는 레닌이 초인간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는 공청 생활의 구체적인 요구에 깊이 들어가 해결하며 조언을 주며 이러저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도를 제시하여 줄 시간을 짜내군 하였다. 1919년 4월 제 1차 전로 학생 당원 대회가 소집되였다.

공청과 학생 당원들 간에는 충분한 련계가 없었다. 많은 지방 공청 조직들은 새로운 로동 학교 창설 문



제를 마치 인테리들의 사업인듯이 간주하면서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이런 사태를 시정함에 도움을 주었다. 레닌은 학생 당원 대회에서 한 자기 환영사에서 쏘베트 학교 신설 사업에 공청원들이 참가하는 거대한 의의를 지적하였다. 대회가 있은 후 학생 당원들은 조직적으로 공청에 가입하였다.

1919년 10월은 공민 전쟁 행정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급한 시기였다. 남쪽으로 부터 제니낀 백파군들이 모쓰크바로 접근하여 오고 북쪽으로 부터는 유제니츠 장군의 도당들이 뻬뜨로그라드로 쳐들어 오고 있었다. 적들은 혁명의 심장부에 달려 들어 그 고동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다. 준엄하고도 위험한 시기에 제 2차 전로 공청 대회가 모쓰크바에서 소집되였다. 대회의 대표단들은 전체 공청원들을 전선에 동원할 것을 선포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대회의 제의를 심의하여 동원은 하되 전선 부근의 공청원들은 80~100프로로, 기타 지방에서는 30프로만 하자고 제기하였다. 레닌은 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였다. 그는 청년들의 사업과 새 생활의 개척에서 성취가 있기를 축원하였으며 승리의 굳은 신념을 표명했다. 청년들의 력량은 전선에서 뿐만 아니라 후방의 공장, 농촌에서도 필요하였다.

…공청 생활에서 잊지 못할 력사적인 1920년, 이 해에 제 3차 공청 대회가 소집되였다. 모쓰크바에 있는 말라야드미뜨롭까의 제 6호 건물(지금은 레닌 공청 극장)의 큰 회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회장은 용감한 병사들, 헌신적인 건설자들, 새 생활의 창조자들, 공상가들, 영웅들—전국의 프로레타리아 청년 일색으로 장식되였다. 대표들의 년령은 17세부터 20세 까지였다. 리력서의 《지식 정도》란에는 대부분 《소졸》이라고 간단히 씌여져 있었으나 《읽을 수 있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함》, 《유식함》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었다.

우리는 레닌을 기다렸다. 그 동안 노래도 부르고 서로 말다툼도 하였다. 이러던 중 별안간 《레닌!》 하고 기쁨에 찬 웨침 소리가 회장을 울렸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는 캡을 쓰고 스프링코트를 입고 갑자기 주석단에 나타났기에 얼른 그를 알아 볼 수 없었다. 레닌! 바로 그이가 미소를 띠우고 우리와 나란히 아주 가깝게 서 있지 않는가, 심장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우뢰와 같은 박수 갈채가 한동안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된다. 그러나 레닌은 시계를 보이면서 조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장내는 조용해졌다.

레닌은 주석단 한 모퉁이에 가까이 가서 우리의 긴장된 얼굴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뗐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마는 공산주의 청년 동맹의 기본 과업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공화국에서의 청년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장내는 더욱 조용하게 되였다.

레닌은 마치 나라의 전체 청년들과 담화라도 하듯이 우리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청년들과 공산주의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한 문제를 론의해 봅시다. 이 과업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업이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그 전부가 레닌의 말씀의 심중한 뜻을 단번에 리해할 수 있은 것은 아니였다. 많은 대표들은 직접 전선에서, 어떤 대표들은 공장과 제조소에서, 또 어떤 대표들은 농촌에서 대회에 참가하였다. 우리들은 자기의 모든 힘과 정열을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헌신적으로 받치면서 다 같이 적과 싸웠고, 일하였으며, 건설했고 매일 같이 태산 같은 사업을 해결하였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과업은 끝난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배우라는 것이 아닌가!

레닌은 우리가 놀라하는 기색을 보았다. 레닌은 평범하고 누구나 다 리해할 수 있는 말로써, 때로는 이미 말한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깊은 리론적 명제라면 우리 일상 로동 생활에서와 근로자들의 투쟁에서 산 실례를 들어 내용을 강조하면서, 공산주의란 무엇이며 과학과 인간이 축적한 지식에 의거함으로써만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리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회는 다만 로동자, 농민들만이 건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늙은 세대 사람들은 쏘베트 정권을 쟁취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공산주의 건설과 승리를 위한 조건들은 이미 보장되였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은 현재 15내지 20세에 달한 젊은 세대들입니다.》

공산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하신 레닌의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과 머리 속 깊이 아로새겨졌다. 그것은 완강하고도 꾸준하게, 수학과 화학, 력사와 건설 공학을 배워야 하며 이 지식들을 기업소에서 생산 활동과 결부시키며 농업에 그를 도입하며 교양 있는 사람으로, 근로자로 되여야 하며 한 마디로 모든 힘을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받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들은 레닌의 말을 들음으로써 공산주의는 공상으로부터, 멀고 희미한 미래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설하며 창조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 기본 건설의 혁신을 위한 길에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로동 청년부 부장

홍 순 권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서와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향토로 건설하기 위하여 기본 건설 사업을 가일층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취급하였다. 전원 회의는 기본 건설 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결함들을 심각히 분석하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 건설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오늘 날 아주 중대한 과업 중의 하나 이다. 왜냐 하면 우리 당은 첫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두고 있느니 만큼 이의 성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기본 건설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본 건설 부문이 거둔 성과는 실로 크다. 황해 제철소, 남포 제련소, 희천 공작 기계 공장 등 중공업 기업소들과 평양 방직 공장, 육류 가공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경공업 기업소들을 포함한 360 여 개의 대,중 기업소들을 복구 개건 신설하였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방대한 건설 사업이 진행되였다. 평남 관개 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관개 시설과 하천 개수 공사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결과에 10 여 만 정보의 관개 면적이 확장되였으며 16만 정보의 농경지를 수해와 한재로 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평양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폐허로 부터 현대적인 도시로 일어서고 있으며 510 만 평방 메터의 주택과 5,400 여 개의 학교, 1,700 여 개의 병원, 기타 많은 교육 시설과 사회 급양망들이 복구 신설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기본 건설에 대한 로동당의 정책이 정당하며 그를 따르는 우리 나라 인민 대중과 청년들의 애국적 열성이 비상히 높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지난 시기 기본 건설에 대한 로동당의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부문엔 적지 않은 결함들도 있었다.

즉 그것은 1957년 상반년 간 건설 조립 작업 계획을 기계 공업성에서는 78%, 건재 공업성에서는 86%, 금속 공업성에서는 88%, 총체적으로는 89% 밖에 실행 못하였다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이와 같은 결함은 새로 조성된 유리한 환경에 순응하여 대담하게 조립식 건설 작업을 도입하라는 로동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지 않

고 낡은 수공업적 방법에 여전히 매달려 사업한 데 기인된다. 이는 건설 부문에서 당의 정책을 외곡 집행한 김 승화, 리 필규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혁명의 배신자들이며 극도로 타락한 분자들인 이들은 건설의 조립식 방법이 《시기 상조》라고 하면서 기본 건설에 대한 당의 정책 실행을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던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 건설의 중요 과업은 인민 경제의 기간 공업,특히는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야금, 비료, 섬유, 건재,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의 기업소들과 연료, 동력 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다. 또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관개 하천 제방 공사와 방대한 도시 및 농촌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건설 사업 수행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150% 이상 제고시키며 건설 원가를 28% 이상 저하시켜야 한다.

기본 건설 부문 앞에 제기된 이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일대 혁신하며 그의 비률을 제1차 5개년 계획 말에 가서 산업 건설에서는 20%, 도시 건설에서는 50%, 평균 40% 이상 제고시킬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당이 제시한 조립식 건설 방법은 날로 증대되는 현대적 건설을 질적, 량적으로 보장하며 로력을 절약하며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경감시킴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한층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우기와 동기에 겪고 있는 계절적 제약성을 극복하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오늘 조립식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건재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지금 조립식 건설에 필요한 정도의 목재 가공 공장, 건설 부재 생산 공장들을 확장할만한 조건들이 구비되여 있다. 또한 현대적인 건설 기계들과 기술 및 설계 력량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로동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에서 제시한 기본 건설의 일대 혁신을 위한 길에서 이 부문 내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 앞에 제기된 과업은 무엇인가?

**(1), 기본 건설 부문 내 청년들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 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우선 이 부문 내 청년들을 당의 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사상 정치 교양 사업과 문화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며 그들이 저마다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하며 사회주의 건설자로써의 높은 긍지감과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건설 부문 내 청년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발동시켜 반당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 여독을 철저히 청산하도록 하고 일체 낡고 보수적인 고질들을 배격하면서 우리 나라의 기본 건설에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무진장한 창조적 재능과 애국적 정열을 다 발휘케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본 건설 부문에는 전후 복구 건설이 광범하게 확장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 일하게 되였는바 그들 가운데는 건설 경험을 가진 동무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청년들이 로동과 민청의 조직 사상 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으며 계급적으로 각성이 부족한 그것이다.

사업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기본 건설 부문 내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과 문화 사업을 이러저러한 구실 밑에 극히 무책임하게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청년들이 민청 교양망과 학습에서 자주 빠지게 되였으며 문화 휴식 생활은 정상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 이 부문 내 적지 않은 청년들은 자기들이 오늘날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망각하고 안착되지 못한채 낡은 생활 유습에 사로잡히고 있다.

우리는 일부 건설장들에서 당의 정책에 무관심하며 로동에 불성실하며 기계 설비 취급에서 무책임한 청년들을 때때로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속에 깊이 침투하여 건설 현장의 실정과 청년들의 준비 정도에 알맞게 사상 교양 사업을 조직하며 특히 당의 정책 교양과 10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그들의 계획 수행과 생활을 결부시켜 철저히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본 건설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출선 선구자로 나서도록 할 것이다.

또한 민청 단체들은 건설장의 실정에 알맞는 문화 휴식 생활을 흥미있게 조직하며 생산 문화를 개선하여 청년들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행복감을 갖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무궁 무진한 힘을 발양케 해야 한다.

또한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건설장에서의 청년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기세와 활기를 더욱 더 고무 추동하는 창발적인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2), 기본 건설 부문 내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더욱 높여야한다.**

기본 건설의 혁신을 위하여서는 청년들이 선진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소유하여야 한다. 기술이 없이는 건설을 공업화할 수 없다.

특히 청년들은 가장 귀중한 건설 기계, 설비들의 담당자로 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대렬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킬 조립식 건설은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부재 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를 요구하는 바 이것이 모두다 높은 기술적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즉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진 기술과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건설 속도와 질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하는 선구자가 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건설 부문에서 기술 관리 사업과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은 거의 도외시 되여 있고 청년들 속에서 기술을 배우는 불'길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결과 청년들이 대부분 운전하고 있는 중요 건설 기계들의 가동률은 금년 상반년도에 있어서 탑식 기중기 53%, 엑쓰까와똘 46%, 몰탈 혼합기는 35%로서 총체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이 부족한 탓으로 고 성능 기계들의 리용률은 낮은 형편이며 고장과 무리한 혹사가 허용되고 있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의 기술 학습 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 지도하며 통제를 강화하며 매개 청년들이 각종 기술 학습과 전습 체계에 빠짐없이 망라되여 꾸준히 배우도록 하며 동시에 행정과 긴밀한 련계 밑에 강사들과 전습 지도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미 민청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청년 혁신자 학교들을 도처에 조직하고 선진적 작업 방법을 연구 도입하며 기계 설비들을 애호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건설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술 기능 직종들에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며 로력 조직의 합리화와 선진적 종합 브리가다의 조직 운영에 따라 절실히 요구되는 다기능 습득 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하도록 발기자가 되며 제창 자로되며 솔선 모범이 되여야 한다.

**(3), 낡고 보수주의적 경향과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 부문에 심히 남아 있는 온갖 보수성과 낡은 것은 우리 나라의 기본 건설에 대한 당의 정책을 지연시키며 방해한다.

청년들은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로동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사상 정치적으로 동원되며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당 결정과 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일체 낡고 보수적인 고질들과 무질서하고 무규률한 일체 부정적 경향들을 배격하고 새 것을 지지 옹호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각 직종들에서 새 기준량 창조의 봉화를 일으키며 부로크 생산에 대한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부로크에 의한 조립식 건설을 촉진시키며 온갖 가능한 예비들을 동원하는 한편 특히 로천식 부로크 제작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데 솔선 나서야 한다. 그리고 또한 수공업적인 락후한 시공 공정을 기계화하기 위하여 현존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여야 한다.

**(4), 청년들은 도시와 농촌을 더욱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 인민적인 운동에 광범히 참가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건설의 전 인민적 운동은 우리의 발전하는 현실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이며 우리 인민들의 요구이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전체 청년 학생들을 도시와 농촌 및 생산 건설에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참가시켜 한채의 주택, 교육 문화 시설이라도 더 지어야 한다.

로동자, 농민, 상인 수공업자—각 계층 청년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정력과 기술과 힘을 합하여 자기 자신들의 문화 주택들을 짓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국가 자금에 의한 720 여 만 평방 메터의 주택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택을 도시에 건설하며 농촌에 20만동 이상의 문화 주택들을 지어 우리의 주택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 부문 특히 농업 협동 조합내 민청 단체들은 농촌 건설 10개년 계획 작성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우수한 청년들을 건설 작업반에 망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 고중 졸업생들과 제대 군인들을 농촌 건설의 기술 담당자들로 육성하는데 주목을 돌릴 것이며 그들이 장차의 보다 대대적인 농촌 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로동당은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을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와 풍요하고 문화적인 농촌 건설에로 부른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건설에 다 같이 적극 참가하자! 그리하여 로동당 앞에 충직한 우리 영웅적 조선 청년들의 기개를 다시 한번 자랑하자!



# 청년들은 당 정책의 적극적 옹호자이며 실천자이다

김 의 철

맑스—레닌주의 당은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을 조직하며 령도하는 전투적 참모부이며 그의 정치적 수령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혁명적 당은 조선 로동당이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혁명의 령도자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조선 근로 대중의 선봉대인 로동당은 그의 창건 첫날 부터 조선 인민의 근본적 리해 관계를 대표하며 그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지도로써 우리 인민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었으며 그들을 영광스러운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8.15 해방 후 조국의 통일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로동당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로선과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로동당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 새 형의 당이다.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선진적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서 백만 당원을 가진 혁명적, 대중적 당이다. 로동당은 자기 대렬에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우수한 분자들 즉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검열되고 정치적으로 준비된 혁명 투사들을 결속시키고 있다.

로동당은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옳게 적용시키면서 자기의 정당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 실시하면서 조선 인민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의 실현과 새 사회——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위대한 목적 실천에로 인도하고 있다. 로동당은 그 대렬의 강철 같은 통일과 단결, 조직성과 규률성으로써 강력하다.

로동당의 위력의 원천은 수백만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에 있다. 로동당과 수백만 근로 대중과의 깨뜨릴 수 없는 단결은 우리의 승리의 기본 조건으로 되고 있다.

× ×

로동당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조선 로동당은 8.15 해방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치 정세 하에서 우선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하며 우리 나라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진정한 인민 정권을 창건하고 조선 인민의 세기적 숙망이던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였다. 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그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부터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사회로 전변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가져 왔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현저히

개선 향상되였으며 로농 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적 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는 우리 조국이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할 튼튼한 기지로 전변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구원하는 강력한 민주 세력의 기지로 되였다.

로동당은 우리 인민 민주 제도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혹한 시련의 시기였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의 조직자였다. 우리 조국의 존망과 우리 인민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준엄한 전쟁 년간에 로동당은 전쟁의 모든 중하를 자기의 어깨에 걸머지고 전체 인민의 선두에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전후 로동당은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그의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되는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인도하고 있다.

전후 시기 조선 인민들 앞에는 파괴된 인민 경제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급속히 복구 강화함과 동시에 전쟁에 의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의 요구를 긴급히 충족시켜 주어야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동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 로선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를 실천하는 길에 들어 섰다.

전후 4년간에 우리 인민들은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의 올바른 령도하에 벌써 새로운 기술로 복구 확장된 240여개의 대, 중 기업소들과 80여개의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체의 힘으로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각종 최신식 기계들과 건재 그리고 화학 비료, 농기계 등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량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시책에 의하여 총 농가 호수의 90% 이상이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기아와 빈궁을 모르는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되여 가고 있다.

농업 협동화에서 거둔 승리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와 농업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조성하여 놓았다.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기본 방향이 명시된 제 1차 5개년 계획은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약속하고 있다. 로동당이 명시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은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인바 이것은 로동당이야 말로 조선 인민의 리익의 진정한 대표자이며 옹호자라는 것을 실증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된다.

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 전개하고 있다.

즉 로동당은 당 대렬을 내부로 부터나 외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온갖 반혁명 분자들의 활동을 매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였으며 당의 정당한 로선을 반대하는 좌우경적 기회주의 편향들을 극복하였으며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종파 분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 속에서 강화되였으며 단련되였다.

로동당은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백전 백승의 당이다.

× ×

로동당은 우리 혁명의 령도자이며 우리 청년들의 행복의 상징이다.

로동당은 민청을 창건하고 육성하였으며 청년들의 요구와 희망에 깊은 배려를 돌려 주었으며 그의 모든 사업을 친히 지도해 주고 있다. 때문에 전체 청년들은 로동당의 품속에서 자라고 있는 스스로들을 더 없는 영예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동당이 가르키는 길에서 모든 행복의 원천을 찾고 있다.

민청을 당의 방조자라고 하는 것은 민청이 당을 도와 청년들을 사회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당을 도와 청년들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과업 수행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며, 당을 도와 청년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과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시켜 조국의 믿음직한 건설자로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청을 당의 후비대라고 하는 것은 민청이 당의 령도하에 당의 정책과 결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광범한 청년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과 실무 능력을 제고시켜 그들을 국가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일'군으로 준비시키며 동시에 우수한 근로 청년들을 배양하여 당의 대렬을 영예롭게 부단히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청은 탄생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임무를 충실히 실천하여 왔다.

민청이 걸어온 전투적 행로는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기록으로 가득차 있다. 민청과 전체 청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하는 평화적 건설 시기와 특히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무력 침공으로 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리고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언제나 로동당과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 실천에 충직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현 계단에서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로서의 민청 단체의 임무는 자기의 력량을 당 정책 실천에로 조직 동원하며 청년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그들을 국가 경제 문화 건설 사업과 사회 정치 활동에 적극 참가 시키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 돌격대가 되게하며 조국 보위의 용감한 투사로 되게 하는데 있다.

× ×

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실천하는 것은 민청의 기본 과업이다. 그러므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무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실천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오늘날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청년들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 정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로동당의 정책은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리익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명한 행복의 앞날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당의 정책과 결정 지시를 자각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민청 생활에 충실하며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들은 반혁명 분자들과 적대 요소들을 철저히 진압하며 적들의 간첩, 파괴, 암해 활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는 투쟁의 초소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매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정책과 결정들을 심오하게 연구함으로써 해당 시기의 당 정책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으며 그의 실행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파악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당 정책 실천에서 창발성과

열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 정책을 비방 중상하거나 외곡하는 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 시키면서 하반년도 계획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하기 위한 증산 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즉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특히 외화의 절약과 내부 원천의 동원, 리용을 위하여 온갖 창발성을 다 할것이며 선진 기술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부문에 솔선 참가하며 특히 광산, 탄광, 림업, 농업, 수산 부문에 진출하여 그 부문의 생산을 혁신시키는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 경제적 강화를 위하여 조합 규약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와 농촌 문화 건설의 선구자로 되어야 하며 또한 5개년 계획 기간에 10만 정보의 과수원을 건설 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호소 실천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세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정책을 심오히 연구 학습하며 우리 조국의 력사와 지리 및 애국적 혁명 전통을 성실히 배우며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장기간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혁명 전통과 그를 계승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력사를 성실히 학습하여야 한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원수의 력사적 연설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로동당의 정책의 구현이며 우리 혁명의 장래 전망을 명시하는 강령적 문헌이다. 때문에 매개 청년들은 이 연설을 성실히 학습하여 그의 사상성과 의의를 똑똑히 파악함으로써 자기의 실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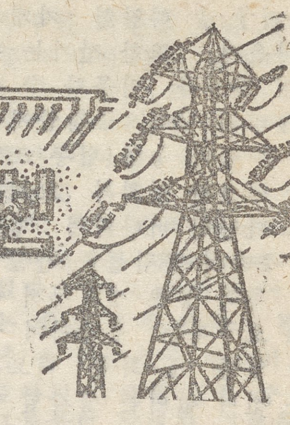
네째로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우리 혁명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인 국제주의에 더욱 충실하며 쏘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동시에 식민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 자유 애호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꾸준한 로력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지혜이며 량심인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들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으며 그의 인민적 정책과 현명한 령도 속에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광명하고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고 있다.

전체 청년들이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그가 가르키는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가자!



# 자랑하세 조국산천



최 영 수

## 우리 나라의 수력 자원

우리는 흔히 석탄을 《공업의 빵》 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물을 가리켜 《백탄》이라고 한다면 아마 적지않은 사람이 의혹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과장도 아니다. 왜냐 하면 오늘 공업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되고 있는 전기가 바로 이 물에서 얻어지는 때문이다.

인류가 물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생산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일이다. 그런데 석탄은 발전소에서 한번 소비하면 그만 없어져서 그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원가가 비싸다. 그러나 수력은 석탄과 달라서 자연적으로 끊임 없이 보충되여 그 자원이 무진장함으로 원가가 훨씬 싸다. 때문에 오늘 전기라면 수력을 생각하리만치 수력 발전이 발전하여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을 대신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력은 인민 경제 각 부문 즉 공업, 농업, 운수는 물론 우리들의 일상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광범히 리용되여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전기는 각종 강재와 특수 강을 만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계 제작 공업과 방대한 건설 사업에서 다량으로 요구되는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여 준다. 이 귀중한 원료와 자재는 우리의 수많은 기계 제작 공장들에서 다시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수십 수백의 각종 기계들에 의하여 공작 기계며, 변압기, 전동기며 각종 농기계

와 농기구 등 다양한 기계로 되여 나온다. 또한 전기는 평양 방직 공장을 비롯한 수 십개의 우리의 방직 공장들에서 방직기를 돌려 농업 협동 조합원들이 생산한 면화와 고치를 가지고 다양한 비단이며 면직물 등 우리의 옷감들을 만들어 낸다. 특히 농촌 경리에서 다량으로 요구되는 류안이며 석질이며 염안 등 화학 비료의 생산은 전력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비단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는 농촌 경리에서 양수 전동기를 움직여 대동강, 청천강 재령강 등 수많은 강의 물을 퍼 올린다. 그리하여 우리의 옥답을 적신다. 그리고 운수 분야에서는 양덕—천성 간의 전기 기관차를 움직여 증기 기관차에 비하여 수송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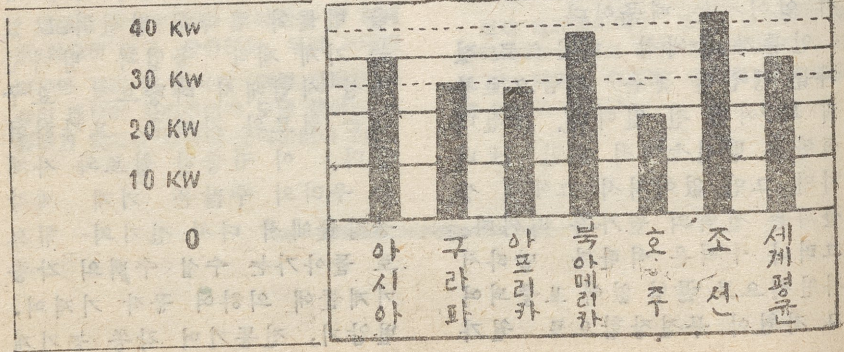
우리들의 일상 생활과 문화 생활에서 전기가 노는 역할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매일 구경하는 영화도 라디오도 전기를 떼여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기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적 변혁을 이르키고 생산을 기계화함으로써 우리들의 로동을 쉽게 하며 절약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문화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는데 거대한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공산주의는 쏘베트 정권 플류스 전국의 전기화이다》라고 하였다.

앞으로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수행하여 우리 나라를 발전된 공업 국가의 대렬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전력을 다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력 자원이 아주 풍부하게 있






다.

우리 나라는 그리 넓지 못한 면적에 비하여 세계적인 수력 리용국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력은 거의 100%가 수력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가지는 수력 자원의 풍부성에 대하여서는 1Km² 당 수력 포장량을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 수력 자원이 풍부한 것은 풍부한 강수량과 무수한 대,소 하천 그리고 산악이 많은 지세 등의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에 기인된다.

수력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다량의 물을 계속적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트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여기에서 강수량이 많고 하천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량의 물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며 산악이 많은 지세는 높은 락차를 쉽게 보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는 40키로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하천만 해도 실로 170개에 달하며 여기에 년 평균 850미리에 달하는 방대한 강수량이 있음으로 하천들은 수량도 많거니와 또 이 하천의 대부분은 그 상류와 중류 부분에서 굳은 암석을 씻어 무수한 여울을 지나 좁은 곡지를 세차게 흘러 내린다. 우리는 또한 하천의 여울이 있는 곳은 하상의 경사가 가장 급할 뿐만 아니라 물'살이 빠르고 견고한 제방을 쌓는데 유리함으로 흔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선택된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여울이 있는 좁은 목에 언제를 쌓으므로써 큰 저수지를 만들어 상당한 높이의 락차를 얻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막대한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실례로 압록강에 있는 수풍 발전소는 900메터의 길이와 106메터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언제를 쌓아 최대 70만 키로왓트라는 거대한 발전력을 내고 있는 세계적인 대 수력 발전소이다. (이러한 발전소를 언제식 발전소라고 한다) 압록강에는 이 외에도 여울이 있는 좁은 목에 언제를 쌓아 수풍 발전소와 같은 대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유리한 지점들이 여러 곳에 허다하게 있다. 언제식 발전소 건설에 유리한 지점은 비단 압록강 뿐만 아니라 두만강, 허천강, 장진강, 독로강, 청천강, 대동강, 한 강 그리고 동해안의 수많은 계곡에도 허다하게 있다.

우리 나라의 자연은 이러한 단순한 언제식 발전소 건설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산지들은 도처에서 절

벽과도 같이 자유로운 경사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개마 고원의 남단을 동서로 뻗고 있는 부전령 산맥의 동남 산면이 그러한데 여기에 개마 고원의 경사면을 따라 압록강에 흘러 들어가는 물을 저수하여 떨어트림으로써 1,000메터 이상에 달하는 세계에서도 류례가 드문 거대한 락차를 얻고 있다. 실례로 장진강 발전소의 구조를 보면 압록강의 가장 큰 지류인 장진강의 물은 장진 고원에서 저수하여 길이 약 24키로의 수압 턴넬로 통과시킨 다음 그 물을 황초령 급사면에 떨어트림으로써 도합 1,000메터에 달하는 높은 락차를 얻어 계단식으로 4개의 발전소를 건설한 것이다.(이러한 발전소를 류역 변경 수로식 발전소라고 한다) 부전강, 허천강 발전소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각각 4개의 발전에서 1,000메터 이상의 락차를 얻어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도합 100만 키로에 달하는 방대한 발전 능력을 가지는 12개의 발전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세계에는 이러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

비단 부전령 산맥 뿐만 아니라 함경 산맥, 태백 산맥, 광림 산맥 역시 높은 락차를 가지는 류역 변경 수로식 발전소 건설에 큰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우리는 벌써 오래 전에 이 산맥들을 리용하여 부령 발전소며 금강산 발전소를 건설하였고 강계 부근에서는 독로강 발전부 건설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력 자원은 비단 하천에만 풍부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수의 간만의 차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지역이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10메터에 달하는 간만의 차를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조력도 또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귀중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의 수력 자원은 방대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에만 의해도 우리의 수력 자원은 근 800만 키로왔트에 달하는 방대한 전력을 낼수 있다. 이것은 서구라파에서도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는 불란서나 이태리와 같은 나라들을 훨씬 릉가하는 전력이다. 앞으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두만강을 비롯하여 동해안의 수많은 산지 하천들에 대한 수력 조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것은 더욱 더 증가될 것이다.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화국 북반부는 더욱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 8·15 전에 있었던 31개의 수력 발전소 중 26



개가 북반부에 집중되여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도 동북 산지대의 수많은 계곡들을 씻고 있는 압록강 수계와 두만강 수계는 특별히 많은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허천강, 장진강, 독로강 등 큰 지류들을 가지고 있는 압록강 수계는 우리 나라 전체 수력 자원의 근 절반을 차지하며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전력의 대부분을 내고 있다. 지금 이 수계들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전력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할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을 활짝 꽃피우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새로운 수력 자원의 개발은 고사하고 남아 있는 발전소 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등 대신에 도시와 농촌에서 미제의 잉여 석유에 의한 석유 등이 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자기의 잉여 석유를 실어다 고가한 화력 전기를 만들어 남반부 인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있다. 암담한 생활 속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화국 정부에서는 남조선 당국에 북반부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값싼 전력을 보내주려는 제의를 하였었다. 그런데 공화국 정부의 이 성의 있는 제의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가는 스스로 명백하다. 그것은 만일 이 제의가 실현된다면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고가한 석유를 남반부 인민들에게 강매하여 더 많은 리윤을 짜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지주와 자본가들에게 속하여 있는 곳에서는 풍부한 수력 자원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인민 정권 하에서 만이 풍부한 수력 자원은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의 야만적 폭격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모든 발전소들을 급속히 복구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력 자원을 인민들의 복리 향상에 더욱 봉사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 건설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북반부 전역에 걸쳐 거대한 수력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전력 생산량은 제1차 5개년 계획 말에 가서 지난 3개년 계획 말에 비하여 거의 2배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우리는 이 귀중하고 위대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는 동시에 그것을 적극 절약하여야 한다.

#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은 민청 조직 사업의 기본이다

강 태 호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민청 조직 사업의 기본이다. 그것은 우리 민청의 대중적 성격에서 부터 출발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민청은 어느한 계층의 청년들만을 망라한 단체인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을 망라하고 있는 대중적 단체이다.

즉 민청에는 로동 청년, 농민 청년, 상인 청년, 종교 청년 등 직업과 신앙, 정당, 가정 환경 여하를 불문하고 각계층 청년들이 망라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은 민청 조직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민청 사업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척도로 될 수 있다.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 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 과업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 조선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민족적 과업은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높이며 남북 조선의 일체 애국적 력량을 단합함으로써 미제로 하여금 우리 강토에서 물러가게 하며 리 승만 도당들을 더욱 더 고립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기초로한 각계 각층의 애국적 력량의 단결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에 평화적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수공업과 중,소 상기업자들을 사회주의 근로자들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범한 각계 각층 청년들을 사회주의 근로자들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강제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 그것은 어데까지나 꾸준한 교양과 설복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자면 각계 각층 청년들과 자주 접촉하여야 하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민청은 민청 제 4차 대회가 있은 후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분적인 민청 단체들에서는 아직 일련의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각계 각층 청년들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종교 청년들의 비과학적 세계관을 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개조하여 주면서 그들을 당과 정부의 정책 실행에 열성 적으로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과의 접촉을 꺼려하거나 배척한 다면 어느 기회에 그들을 개조 하겠는가? 우리는 물론 종교를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는 적대 행동에 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를 폭로 규탄하여야 한다.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라고 하니까 계급적 립장을 떠나서 두루 어루만지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 경향들도 있다.

초급 민청 단체들의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에는 아직도 개선 하여야 할 점이 많다.

그러면 초급 민청 단체들은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것인가!

첫째로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과 청년들 속에서 계급 투쟁을 옳게 지도하는 문제이다.

계급 투쟁의 기본 방법은 사상 투쟁이다.

그러므로 초급 민청 단체 열성자들은 로동당의 조국 통일 전선 정책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청년들 속에서 벌러지고 있는 계급 투쟁을 옳게 지도 하여야 한다.

즉 각계 각층 청년들을 단결시키고 포섭한다고 해서 그들 속에서 발현되는 락후한 사상 경향들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고 융화 묵과하며 지어는 무원칙한 《특전과 환대》의 방법으로 포섭할 것이 아니라 기본 핵심 군중에게 튼튼히 의거하면서 강한 사상 투쟁과 호상 비판의 방법으로 포섭하고 단결하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급 민청 단체 열성자들과 애국 렬사 유가족 및 인민군 후방 가족들 그리고 로력과 민청 생활에서 단련된 동무들을 비롯한 핵심 진지를 튼튼히 하고 사상 투쟁을 강화하여 민청 대렬을 로동당의 사상으로 공고히 하여야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의 벗과 원쑤를 옳게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 속에서의 건전하고도 튼튼한 단결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교양 사업과 사상 투쟁을 옳게 배합하는 문제이다.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각계 각층 청년들을 쟁취하여 당과 정부의 주위에 단결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개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우리 혁명의 원쑤들에 대하여는 폭로 규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다든지 또는 이러 저러한 결함이 있는 동무들이라고 해서 무원칙하게 시비할 것이 아니라 어데까지나 본인의 사상적 약점에 대하여 교양하고 설복해서 민청 대렬에 적극 인입하여 훌륭한 사회주의 근로자로 교양하여야 한다.

례하면 사상적 견해가 확고치 못한 동무들에게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더욱 깊이 해석 침투시키며 개별적으로 인내성 있게 교양하며 도시의 가두 소시민 청년들에게는 우리 나라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그들이 국가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며 로력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도시 수공업 청년들과 개인 농민 청년들에게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과 그의 성과들을 가르쳐 주며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각성 정도에 따라 도시 및 농촌의 협동 조합에 참가하도록 방조를 주어야 한다.

특히 종교 청년들에게는 자연과 사회의 현상에 대한 과학 선전을 꾸준히 하여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청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고도로 높여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간고한 계급 투쟁이다.

공화국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은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시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원쑤들은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청년들의 강철같은 단결을 파괴 약화시키려는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들과 적대적 요소들이 민청 대렬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원쑤들은 항상 무책임하고 무경각한 사업 태도, 무규률하고 부화한 현상들, 그리고 사소할지언정 불건실한 요소들을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에 리용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그의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국가 법령과 동맹 생활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동시에 온갖 불건실한 요소들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오늘날 중요한 것은 권모 술책으로써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과 공화국 정부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민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와 그 여독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공고히 하여 간첩 파괴 분자들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옳은 사상 관점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은 혁명의 기본 임무로 부터 출발하는 로동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실천하는 민청의 기본 과업이다

그러니 만큼 초급 민청 단체들은 로동당의 통일 전선 정책의 본질을 깊이 리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 꾸준히 완강하게 진행하되 반드시 기본 핵심 군중들에게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 참된 생활의 학교

우리는 가끔 적지 않은 초급 민청 단체 열성자들로 부터 총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군한다.

사실 총회는 민청원들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총회는 곧 민청원들의 모든 생활을 조직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학교로 되기 때문이다.

총회가 민청원들의 생동한 학교로 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토의할 안건을 잘 설정하여야 한다. 즉 총회에서 취급할 안건은 어데까지나 민청원들의 생활 속에서 잡아야 하며 또 초급 민청 단체가 처한 구체적 실정에 근거하여 가장 긴절한 문제 중에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초급 민청 단체 총회들은 경제 깜빠니야에만 치중하거나 또는 총회 안건을 설정하는데 초급 민청 단체 실정과는 맞지 않는 문제들을 설정함으로써 총회의 의의를 감소시키군 한다. 그런가하면 총회의 안건 설정에서 구체적 목표도 없는 막연한 문제를 설정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러면 총회에서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할 것인가?

총회에서는 초급 민청 단체의 실정에 따라 민청원들의 생활에서 표현되는 이러저러한 문제라든가 또는 매 시기 제기되는 당과 정부의 정책 수행에로 민청원들을 사상 동원하기 위한 문제 등 당해 시기 초급 민청 단체가 중심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설정하고 토론하여야 한다.

지난 6월 초에 조직한 대동군 안'골 농업 협동 조합 민청 단체의 총회는 잘 되였다. 안'골 농업 협동 조합에는 80명의 민청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중 초, 고중을 중퇴하였거나 졸업한 민청원들의 수는 30여명이나 된다.

그런데 조 기동 동무와 강 춘선을 비롯한 적지 않은 초, 고중 졸업생들이 조합에 튼튼히 뿌리 박지 못하고 들떠 있었다.

즉 그들은 농업 로동을 천한 일로 생각하면서 쉽고 깨끗한 일자리를 꿈꾸고 쓸데 없이 평양에 자주 드나들군 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다른 일부 락후한 민청원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게 되였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총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농촌은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이며 배움의 학교》이다. 총회의 제목은 이렇게 달았다. 총회 제목은 민청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 초급 민청 단체에서 이런 제목으로 총회를 가진 것은 조 기동 동무와 강 춘선 동무를 중심으로한 일부 초, 고중 졸업생들의 농업 로동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쳐주는데 큰 도움으로 되였다.

총회의 성과는 문제의 옳은 설정만으로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면밀한 준비 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이 초급 민청 단체에서 한 《농촌은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이며 배움의 학교이다》라는 총회의 준비는 비교적 잘되였다. 그들은 총회 준비를 근 20일 간이나 하였다.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총회에 앞서 민청 분조와 민청 《벽보》를 통하여 총회의 제마가 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매개 민청원들에게 해석 침투시켰다. 그리고 또한 총회 내용과 관련되는 문헌들과 자료들로 민청원들 속에서 담화 토론도 조직하고 군민청 선전 선동 부장을 초빙하여 《청년들의 리상과 행복》에 대한 제마로 강연도 조직하였다.

특히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그들이 농촌에 진출하게 된 동기와 본래의 희망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농촌 일을 싫어하는 리유가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료해하기 위한 개별 담화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개별 담화는 총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 기동 동무와 강 춘선 동무는 조합에 갓들어 왔을 때는 일을 잘하는 축이 였다.

조 기동 동무는 대동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 춘선 동무는 평양 방직 전문 학교를 다니다 도중에서 그만두고 농업 협동 조합에 들어 왔다. 조 기동 동무는 학교 시절에 공부도 잘했거니와 특히는 체육에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학교 시절에 자기의 희망을 훌륭한 체육가가 되려는데 두었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는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훌륭한 농업 기술자가 될 것을 희망하고 이곳 농업 협동 조합에서 일하기로 자기의 결심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농사일을 하자니 처음에 생각했든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 농사일에 경험이 없고 로동에서 단련되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몹시 힘에 겨웠다.

이로 인하여 공부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이런데로 부터 그들의 머리에는 《능히 농사일을 해낼 수 있을가?》 또는 《공부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였다. 이런 고민들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농사일을 천시하는 동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개별 담화 과정에서 나타났다. 총회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했다.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그들을 돕기 시작하였다.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혁명 투사들이 조국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까지 바쳐 싸운 이야기며, 리 수복, 조 군실 영웅들의 고상한 조국애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 주군 하였다. 그리고 초, 고중

을 졸업하고 공장과 농촌에서 모든 곤난과 애로를 무릅쓰고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투사로 자라나고 있는 동무들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각각 자기의 생활을 회고하고 검토할 것을 타일러 주었다.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개별 담화 결과를 총화 짓고 보고 체계와 내용을 민청원들에게 알려 주었다. 결과 민청원들로 부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였는 데 총회에는 잘 준비된 보고가 제출되였다.

이렇게 주밀한 준비 밑에 조직된 총회는 민청원들의 높은 정치적 열성 속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 활발한 비판과 자기 비판들이 전개되였다.

총회에서 조 기동 동무는 진심으로 자기의 심정을 토론하였다.

《동무들은 나의 사상 의지의 나약성과 농업 로동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쳐주기 위하여 성의껏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총회에서 조금도 숨김 없이 말합니다. 사실 나는 당의 부름에 따라 농촌에서 일하며 배워서 훌륭한 농업 기수나 기사가 되여 조국에 헌신 복무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농사일을 하자니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나는 은근히 고민하게 되였는 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농촌에 있다가는 배울 수도 없고 또 희망도 없는 일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총회에서 나의 잘못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즉 리상과 행복을 실현하는 길은 오직 영웅적 투쟁이며 창조적 로력이라는 참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나는 꼭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박차고 동무들과 함께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가 될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조 기동 동무의 토론은 민청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민청원들은 한결 같이 조 기동 동무를 도와 주겠다고 토론하였다. 그리고 로동에서의 비천을 가리는 것, 쉽고 깨끗한 일을 찾는 것, 곤난과 애로를 두려워하는 것 등은 모두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품성이 아니라는 것을 비판하였다.

총회가 있은 후 조 기동 동무는 판판 딴 사람으로 되였다. 그는 민청 조직 생활 규범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민청에서 위임된 과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체의 정치적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정치 학습에 꾸준할 뿐만 아니라 선진 영농 기술 연구 크루쇼크에 참가하여 농업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쉬운 일,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항상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고 있으며 조합 규률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총회가 있기 전에는 조합 공동 로동에서 매달 평균 로력 점수를 20점 이상 수득해 본적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매달



평균 로력 점수가 33점 이하로 된 일이 없으며 지난 9월에는 34점이라는 최고 로력 점수를 벌었다.

조 기동 동무는 그때의 총회 분위기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였다.

《그때 총회가 나의 로동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사상 의지의 나약성을 고쳐주지 않았던들 나는 오늘과 같은 행복하고 희망찬 생활의 기쁨을 지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참된 생활의 기쁨과 발전이란 오직 영웅적이고 참된 로동 속에 있다는 것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잘 알았습니다. 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농업 정책을 높이 받들고 모든 지혜와 정열을 사랑하는 고향—농촌의 번영과 륭성 발전을 위하여 바치렵니다》

이것은 비단 조 기동 동무 뿐만 아니라 이곳 농업 협동 조합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공통된 심정이며 조선 로동당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한히 충직하며 헌신 복무하려는 생활의 목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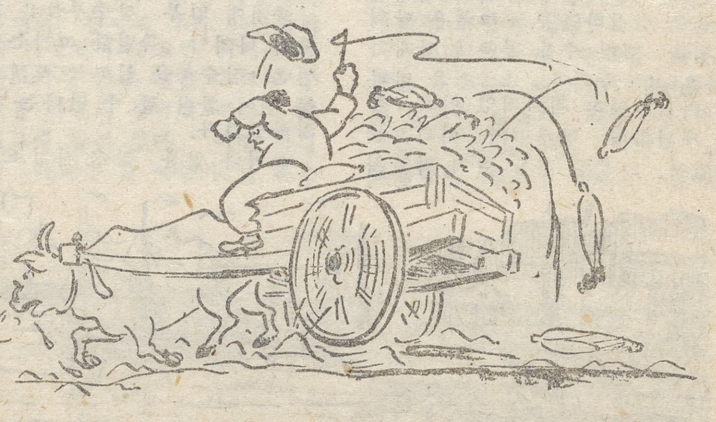
총회는 이렇게 민청원들의 생활을 따뜻하게 도아주며 그들의 정치적 시야를 넓혀주는 정치적 학교이며 참된 생활의 학교이다.

그러므로 총회는 항상 민청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하며 엄격한 비판과 솔직한 자기 비판을 대담하게 전개할 수 있는 무대로 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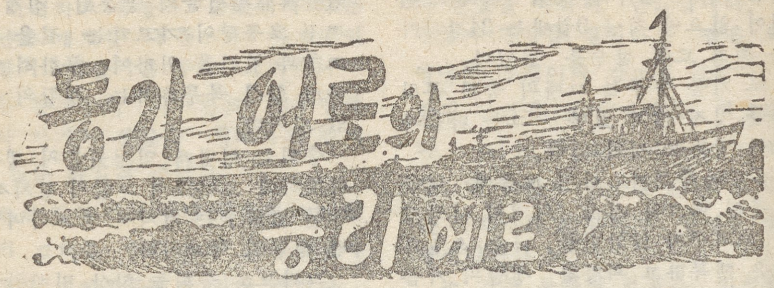
총회는 또한 민청원들이 자기의 기쁨과 슬픔, 그들이 생각하며 말하고저 하는 바를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동적인 장소로, 다정한 가정으로 되여야 한다.

김 용 철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 동기 어로의 승리에로!



지난 기간 우리 나라의 청년들은 바다를 정복하는 용감한 싸움에서도 보람찬 승리를 쟁취하였다.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은 바다로 진출하라는 조선 로동당의 호소를 받들고 이미 4,000 여 명의 애국적 청년들이 바다로 나갔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나라의 수산 부문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보다 2배로 높아졌으며 그중 직접 어로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비률은 15%로부터 30%로 장성되였다.

바다에 진출한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길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그들은 당의 가르침을 따라 수산 부문에 잠재하는 낡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타파하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어로 작업을 대담하게 전개하여 어획고를 높이였다. 그들은 항상 심해 작업의 앞장에 섰으며 앉아서 고기를 기다리는 그런 투기적 고기 잡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진 어로 기술을 도입하는데 창발성을 다했으며 로련한 선배들한테서 훌륭한 어로 경험들을 배우는데 있어서도 허심하고 성실한 학도의 품성을 지키였다.

종전엔 까나리는 근해에서만 잡히는 것으로 알았었다. 그러나 차호 수산 사업소의 《민청호》 김 태협 브리가다원들은 심해에 나가 까나리 잡이를 하였다. 그런 결과 세번 귀망에서 3톤 500키로라는 놀라우리만치 많은 까나리를 잡았었다.

종전에 일부 잠수부들은 깊은 바다에 나가야 특별한 고기는 없으며 현존 잠수복을 입고는 도제 그렇게 물 깊이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고집하였었다.

그러나 원산 잠수 사업소 잠수공 문 응선 동무는 자기의 모범으로서 이런 경험주의자들의 고집을 잠수부들의 활동 무대에서 영원히 쓰러버렸었다. 즉 그는 대담하게 깊은 바다로 들어가 몇배나 더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이다.

수산 부문에서 우리 청년들이 얻은 빛나는 로력의 열매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다의 젊은 투사들의 심장에 있다. 그들의 심장이 당이 가르키는 길에서 항상 높이 뛴다면 어느때 어떤 환경에서나 고기는 많이 잡을 수 있으며 그들은 바다의 승리자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은 지금 바다의 젊은 투사들을 동기 어로 작업의 높은 성과에로 부르고 있다. 우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동기 어로 작업은 수산 부문 인민 경제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금년 동기간 물고기 생산량이 년간 생산 어로 계획의 50.4%, 동해에서는 62.9%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설명된다. 동시에 우리 인민들의 식 생활 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물고기의 많은 생산과 대외 수출용 어류 가공의 절대적 비중이 이 동기 어로에 달려 있다. 이런 사정은 동기 어로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인민 생활 향상과 외화 획득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여 준다. 특히 금년 상반년 어로 생산 계획을 전국적으로 미달한 사실은 동기 어로에서 이 미달한 것까지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금년 어로 생산 계획을 넘쳐 실행할 데 대한 요구를 수산 부문 앞에 당연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의 젊은 투사들이여! 우리는 청춘의 용맹성과 지혜를 다하여 동기 어로에서도 영예의 승리자가 되자! 그리하여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우리들에게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바로 그 고귀한 신임에 보답하자!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산 부문내 민청 단체들이 청년들 속에서 사상 동원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겨울의 바다는 사납다. 항시 성난 파도가 바다를 휩싸며 찬 바람이 살을 어인다. 이런 속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의 그것보다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겨울의 바다를 정복하는 것은 위대한 로동이며 청년들의 끓어 넘치는 정열과 약동하는 맥박에 맞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로동당의 수산업 정책을 실행하는





영예로운 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무들은 바다에 나가기를 두려워 하며 또 어떤 동무들은 겨울의 바다 일이 싫은 나머지 자기의 일터에 고착되지 못하고 불안해 한다.

이것은 확실히 약자의 하소연이며 청년답지 못한 그런 비겁성의 표현이다. 겨울의 바다가 제아무리 사납고 새'바람이 맵짜다 할지언정 위대하고 영예로운 로동을 지향하는 우리 청년들의 피끓는 심장을 식힐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포를 헤치고 적함에 육박하면서 전시 어로 작업을 승리적으로 실행하였거늘 그까짓 추위와 파도에 지겠는가!

우리는 한척의 배도 놀리지 말고 한 사람의 청년 어로공도 놀지 말고 모두가 모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 동기 어로는 어데까지나 준비가 철저히 되여야 한다. 아직까지 동기 어로 작업을 위한 준비가 잘 되지 못한 배들은 성어기 전에 한시 바삐 손을 써서 그 부족점들을 고쳐 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배들의 어업 건수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한 바 특히 4. 4분기 총 생산량의 93%를 담당한 기선 저예망들의 어업 건수를 높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기 어로 준비에서 원산 수산 사업소 청년들은 모범을 보였다. 이곳 수산 사업소에서는 년간 증산 목표 2만톤 중 1만 2천톤의 물고기를 4. 4분기 기간에 잡아야 한다. 이렇게 투쟁 목표는 엄청나지만 이곳 청년들은 능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6척의 예비선 수리와 40여건의 편망 작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그 배들과 그물은 벌써 명태를 잡는데 리용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은 동기 어로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귀중한 열쇠이다. 배도 많고 어로공들도 많지만 그중 운선술(運船術)과 고기 잡이에 서투른 동무들이 많다면 눈 앞의 고기도 놓쳐 버리고 마는 것이다. 때문에 수산 부문 내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에 세심한 배려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들 역시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가 정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락산 수산 사업소 내 청년들의 모범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이 사업소의 한 정치망엔 18명의 청년 브리가다원들이 있었는데 그중 13명이 배를 처음 타는 무기능공들이였다. 이 무기능공들은 한 때 배를 타지 않으려고 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배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배 타는 것이 재미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제때에 포착한 동 사업소 민청 단체는 어로 기수 리 응호 동무를 비롯한 4명의 기수들에 의거하여 무기능공들 속에서의 기술 기능 교양 사업에 착수하였다. 기수들은 모래판 우에 배와 그물의 모형을 만들며 기술 까





비네트를 설치하여 무기능공의 학습 의욕과 흥미를 돋구었다. 그리는 한편 정치망의 구조, 물고기들의 습성 등 초보적인 수산 과학을 가르쳤으며 그물을 뜨는 법, 노 젓는 방법 등 실천적인 동작들을 배워 주었다. 이런 결과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하는 동무는 하나도 없게 되였으며 무기능공들은 모두가 4급공이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치망 어로에서 높은 성과를 얻었었다.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들이 로련한 선배들 한테서 계속 꾸준히 배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주위엔 그렇게 하지 않는 일부 바다의 청년들이 있다. 이런 동무들은 《늙은이》들을 옳게 리해 못하고 있는바 그들을 거저 《낡은》 사람들이라고만 치부하며 그들의 말은 모두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라고 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릇된 사상 관점에서 부터 출발한 것이다. 바다의 《늙은이》들에겐 물론 일제 한테에서 물려 받은 낡은 세대의 습관과 이러저러한 낡은 사상 잔재들이 그 어느 계층보다도 많다.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것은 청년들의 의무이며 자랑이다.

그러나 바다의 《늙은이》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으며 수십년 동안의 《사공》 생활에서 고기 잡이의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긍정적 면은 지난날 우리 청년들을 도와 주었으며 앞으로도 도와 줄 것이다.

동기 어로의 성과는 비단 어로 부문 청년들에게만 달려 있지 않다. 사태로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빠짐 없이 신속히 문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공 부문 청년들은 고기를 가공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도 불만족하다면 그것을 곧 시정하고 내장물까지 합하여 고기의 전량을 가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젊은 투사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쑤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규률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며 서로 더욱 단합하며 적과 반혁명 분자들의 암해 활동은 물론 어떤 실수로 인한 하나의 작은 사고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동기 어로의 성과는 또한 동해에만 달려 있지 않다. 서해안 수산 부문 청년들은 안강망 어업에서 백하어기에 수조기, 민어, 홍어 등 고급 어족들을 많이 잡으며 저예망 어기를 연장하도록 최대의 힘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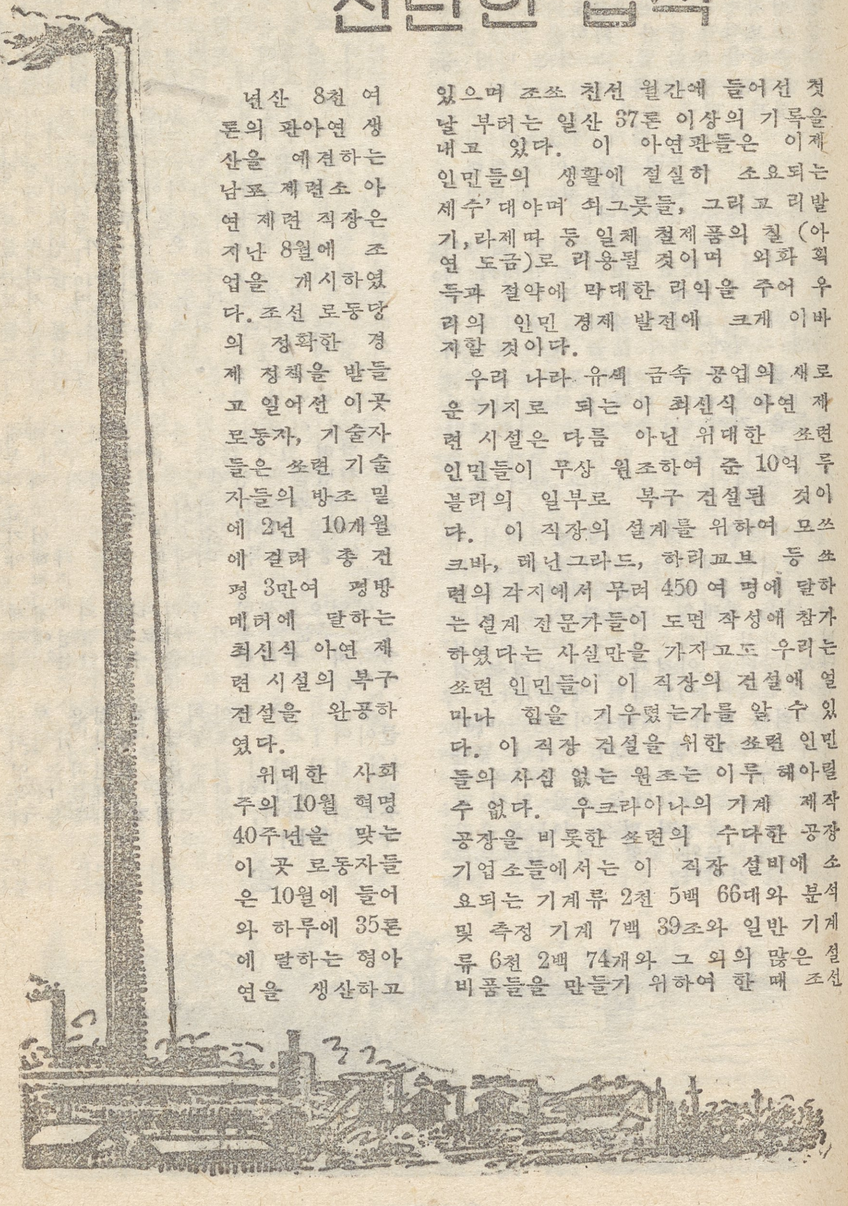
이럼으로써만 우리 나라의 전체 수산 부문은 동기 어로의 결전에서 종국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동, 서 량 해안의 전체 젊은 투사들이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는 영광의 길에서 이미 얻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새 로력적 위훈을 더욱 빛내자!

송 선 경



# 찬란한 업적



년산 8천 여 톤의 판아연 생산을 예견하는 남포 제련소 아연 제련 직장은 지난 8월에 조업을 개시하였다.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을 받들고 일어선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쏘련 기술자들의 방조 밑에 2년 10개월에 걸쳐 총 건평 3만여 평방 메터에 달하는 최신식 아연 제련 시설의 복구 건설을 완공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맞는 이 곳 로동자들은 10월에 들어와 하루에 35톤에 달하는 형아연을 생산하고 있으며 조쏘 친선 월간에 들어선 첫날 부터는 일산 37톤 이상의 기록을 내고 있다. 이 아연판들은 이제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소요되는 세수'대야며 쇠그릇들, 그리고 리발기, 라제따 등 일체 철제품의 칠 (아연 도금)로 리용될 것이며 외화 획득과 절약에 막대한 리익을 주어 우리의 인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우리 나라 유색 금속 공업의 새로운 기지로 되는 이 최신식 아연 제련 시설은 다름 아닌 위대한 쏘련 인민들이 무상 원조하여 준 10억 루블리의 일부로 복구 건설된 것이다. 이 직장의 설계를 위하여 모쓰크바, 레닌그라드, 하리꼬브 등 쏘련의 각지에서 무려 450 여 명에 달하는 설계 전문가들이 도면 작성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쏘련 인민들이 이 직장의 건설에 얼마나 힘을 기우렸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직장 건설을 위한 쏘련 인민들의 사심 없는 원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기계 제작 공장을 비롯한 쏘련의 수다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이 직장 설비에 소요되는 기계류 2천 5백 66대와 분석 및 측정 기계 7백 39조와 일반 기계류 6천 2백 74개와 그 외의 많은 설비품들을 만들기 위하여 한 때 조선 원조 주간을 설정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건설 공사를 직접 도와주기 위하여 유능한 기술자 40 여 명을 보내여 주었다. 그리하여 이 기술 전문가들은 우리 로동자들과 함께 손에 기름을 묻히고 손수 기계 조립에 참가하였으며 그 설비에 생소하던 우리 로동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의대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도와 주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기계 이름도 모르던 우리들이 쏘련 기술자들 한테서 배워서 창의 고안품까지 내게 되였지요. 전해조 복구 공사 때 우리에게는 위니프라스트판이 없어서 곤난을 받았지요, 이 때 연공 김 천식 동무가 그 기계 대신으로 수채에 의한 정액 공급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지해 주고 기술적으로 도와서 완성시킨 것은 야금 공정 기사인 에쓰•꼬삐또브 단장이였지요》

하고 전해 직장 직장장 주 태호 동무는 공사 과정을 회상하며 말하는 것이였다.

《특히 우리 직장을 <조 쏘 친선 직장>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일제 때에는 이 직장이 유해 직장이여서 마스크를 끼여야 했구 숨이 막혀서 말도 못하였지요. 그러던 것이 이번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새 설비를 갖춘 다음 부터는 무해 직장으로 되여 마스크도 싹 벗어 버리게 되였습니다》

이 때 직장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깨가 쩍 벌어지고 단단해 보이는 한 청년이 말 참견을 했다.

《사실 저는 제대되여 올 때 가장 곤난한 부문에서 일하려고 유해 직장이라고 하는 이 직장을 찾아 왔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그런 비장한 결심이 필요 없게 되였지요, 이것은 우리들을 형제 [illegible]이 돌보는 쏘련 인민들의 덕분이 [illegible]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며 [illegible]는 그의 얼굴은 감개 무량해 보였다.

우리들은 가는 곳 마다[illegible]서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분들의 열성이란 이루 [illegible]할 수 없지요, 친 형제들 게서 더 하겠소. 일을 도와 주어도 참으로 적극적으로 돕지요. 게다가 친절하고 다정한 말이야 더 해 무엇 하겠소》

우리들이 가장 최신식 설비로 신설되였다는 배소로 직장에 들어 갔을 때 책임 기사 양 충점 동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러더니 그는 우'주머니 수첩에서 쏘련 동무의 사진을 내 보인다.

《이 분이 우리 직장의 건설을 도와준 빠끼드쉐브 기사입니다. 우리들이 기계를 돌리는 걸 보고야 고향으로 돌아 갔지요》.

빠끼드쉐브가 이 직장에 온 것은 1956년 10월이다. 그 때 그는 공장에 들어 서자마자

《호—낯 익은 기계들인데, 우리는 모쓰크바에서 이 기계를 한번씩 조립해 보았다오》

하면서 공장 구내에 갓 도착한 접시 공급기들을 가르키며 기뻐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우크루찡크 공장에서 온 그는 모쓰크바에서 남포로 온다는 이 기계들을 다른 기술자들과 함께 시험 조립을 해 보고 온 것이였다. 그러나 쏘련에 있을 때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남포 제련소의 실정은 공사 과정에서 새로운 개척을 요하는 그런 점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쏘련 설계가들의 설계 지도서에 의하면 새로 설비할 비등식 배소로의 케스는 새로 주조하는 것으로 세우게 되여 있었다. 그런데



이곳 로동자들은

《우리는 될 수록 원료와 자재를 덜 드리면서 건설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동 제련에서 쓰던 현수식 배소로의 케스는 능히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리용하도록 해 봅시다》하는 창발적 의견을 들고 나왔다. 빠끼드쉐브 기사는 아직 이런 부문에 경험이 없었지만 조선 로동자들의 창발성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해방 후 12년 간 조선 로동당의 지도 밑에서 새것을 발견하는데 습관이 된 이 곳 로동자들을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 기사와 힘을 합해 일을 진척시키는 길로 들어섰다.

이 날부터 양 기사와 우리 기술자들은 일단 퇴근했다간 다시 설계 연구실로 나왔다. 밤 늦게까지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내용의 설계 도면을 작성해 보다가는 사택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때마다 빠끼드쉐브 기사가 자기 방에서 커다란 도면을 테블 우에다 펼치고 무엇인가 열심히 그려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었다. 그러던 그 며칠 후 드디여 이 설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빠끼드쉐브에 의하여 떨어졌고 우리 설계 기술자들에 의하여 보충되고 확인되였었다. 이 설계에 의한 조립이 성공됨으로써 배소로에서는 수십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던 것이다.

배소로 조립 과정에서 그가 우리 로동자들과 손을 잡고 헌신적으로 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설계 지도서에는 로의 벽체를 여러겹의 벽돌로 쌓기로 되여 있었다. 그런데 이 벽돌 쌓기란 보통 건물의 벽돌 쌓기와는 달라서 주밀한 기술과 많은 경험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우선 내벽에 들어가는 철근 용재가 대단히 많이 들고도 자칫 잘 못 쌓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거나 완공 후에도 그것이 무너지기가 쉬웠다. 이 때 빠끼드쉐브는 《공사에서는 대중의 지혜를 발동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루는 로동자들 앞에 자기의 의견을 내 놓았다.

《조선에는 혹시 더 좋은 자재들이 있을 수 있을텐데 그것으로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는 방도를 함께 연구해 봅시다》

그의 제의는 로동자들의 창발적 열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며칠 뒤 실로 로동자들 속에서는

《내열 콩크리트가 어떨까요? 그전에 붓도에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내열 콩크리트는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단단해 집디다》하는 경험담이 나왔다.



이리하여 빠끼드쉐브는 우리 기술자들과 함께 곧 내열 콩크리트의 실험 작업에 착수했다. 그 때도 그는 실험이 성공될 때까지 퇴근 시간을 잊고 우리 기술자들과 함께 실험실을 떠날 줄 몰랐던 것이다.

또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전 직장의 기본 건설 조립 공사는 끝나고 배소로 직장에서 시운전 작업이 시작되였을 때다. 지금 배소로는 1년 여에 걸친 공사의 성공 여부를 시험 받는 순간이였다. 만약 로의 비등이 순조롭지 못해서 소재가 굳어지고 말 때에는 로를 뜯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2년 여에 걸친 아연 제련 시설의 전체 공정이 당분간 정지되고 말 것이였다. 그런데 때마침 로의 시운전 작업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웬 일인지 로의 열이 갑자기 올랐다간 식어지기도 하며 어떤 때는 소재가 한군데 뭉키기도 했다. 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로동자, 기술자들은 벌써 사흘 밤을 현장에서 꼬박 새웠었다. 이 때도 빠끼드쉐브는 마치 영화의 스크린에 황홀한 사람처럼 로의 하입구로부터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고 견디였다. 잠을 못 자서라기 보다 너무도 정신을 집중하여 로내의 변화를 보고 있는 탓인지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여 있었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그의 옆에다 침대를 가져다 놓았다. 그랬더니 그는 도리혀 그들을 보고

《누우시요. 무리하지 마시요. 생산에 지장이 있소》하고 웃으며 권고하는 것이였다.

자정도 지난 밤중이였다. 로동자들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도 현장의 이쪽 저쪽에서 눈을 붙힌 순간이였다. 다만 양 기사와 몇 명의 기사들만이 자동 측정기실에서 온도계며 송풍량계를 통하여 로내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로 있는데서 벌겋고 퍼런 불'길이 번득이며 여느 때와는 다른 세찬 송풍관 바람 소리가 들려 왔다. 로의 사고나 아닌가 하여 눈이 둥그래진 기술자들은 불이 나게 측정기실 문을 찼다. 2층 층층대를 단숨에 뛰여 내리면 그들은 홉빠 앞에서 약속이나 한듯이 멈칫 서고 말았다. 거기에는 뜻 밖에도 지금쯤 누워 있으리라고 생각한 빠끼드쉐브가 땀이 쭉 내배고 꺼멓게 매닥질을 한 얼굴을 해가지고 장입구를 철봉으로 쑤시고 있는 것이였다.

《양 동무! 발견했소. 소재가 밑에 깔리는 것은 송풍이 약한 탓이였소. 보시요. 정광과 소재가 뒤집히고 있소》

이렇게 말하는 빠끼드쉐브의 얼굴은 붉으스레하였다. 《성공이요. 동지들!》하고 그는 소리치면서 양 기사를 부둥켜 안으며 다른 기사들의 손을 쥐고 놓지 않았다. 순간 양기사는 사람이 너무도 감격하면 그런 것처럼 말문이 막힌채 그를 힘껏 붙안았다.

《지금 그 분들은 돌아가고 안계시지만 그 분들이 남기고 간 찬란한 업적은 우리 직장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와 해여질 때 양 기사 동무는 그의 심장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조 경 직



# 남칠'벌의 전변

안주군 남칠'벌 밤모로 재'등 우에는 지금 남칠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새집들이 줄느런히 일어서고 있다. 여기는 이른 아침부터 젊은 건설 작업반원들로 흥성 거린다.

집들은 모두 목재를 아껴 토벽돌로 세워지고 있으며 지붕은 대개 기와를 올리고 있다. 야장'간에서 들려오는 메치는 소리와 제재소에서 널을 케는 요란한 소리는 마치 도시의 건설장을 련상시킨다.

《화수 동문, 농산 기수가 되겠다고 하더니 이젠 제법 훌륭한 목수가 되였군요. 그러다간 목수로 소환되여 어느 건설장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호……》

토벽돌 반에서 일하는 림 화숙 동무의 하는 말이다.

《나보다 오히려 동무가 벽돌공으로 뽑혀 갈런지 모르겠소. 그러다간 야단인걸………방금 약혼을 앞두고……하……》

김 화수 동무는 이렇게 빈정대면서 작년에 초중을 갓나왔다고는 보기 어려우리만치 능란한 솜씨로 그냥 대패질을 해댄다.

젊은 건설 작업반원들은 재미있게 일한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마다엔 행복한 빛이 어려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금 자기네 문화 주택을 가질 수 있으리만큼 그렇게 부유한 조합원이 되였던 것이다.

《우리집은 전쟁 때 폭격을 당하고 신안주에서 이리로 왔어요》하면서 림 화숙 동무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처음엔 알거지였지요. 그러나 우리집 세식구가 조합에 들어 일한 다음부터 우리의 살림은 그전 처럼 회복되였어요. 오히려 더 나아졌지요. 금년 우리 집의 여유곡만 해도 십여만원 값이 예견되요. 그러니 이 쌀을 다 뭘 하겠어요. 나라에 수매시켜 그 돈으로 새집을 짛고 알뜰한 살림을 꾸리는게 제일이지요…》

이것은 다만 화숙 동무 혼자의 심정이 아니다.

문화 주택들을 새로 짓고 보다 문명한 생활을 즐기려는 것은 모든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로 되고 있다. 작년 가을 분배 때만 하더라도 이곳 모든 조합원들은 각각 3—4만원 씩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였고 집집마다 돼지와 닭들을 넉넉히 칠 밑천을 얻게 되였었다. 그런데 금년엔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배량이 그들에게 차려질 것이다. 즉 로력 일당 계산만 보더라도 금년 분배량은 작년보다 알곡 1키로그람이나 더 많은 량곡이 돌아갈 것이다.

조합 관리 위원회는 이런 실정에 비추어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조합원들의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한 제 대책을 취하였다. 이 기간에 200여호나 되는 아담하고 문화적인 주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설비를 가춘 구락부와 학교, 진료소, 탁아소, 유치원, 돈사, 차고, 정미소, 철공소, 소방 창고, 상점, 공원, 유선 방송 시설 등을 완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금년 동삼 전으로 87세대가 들 수 있는 44동의 문화 주택과 우사, 량곡 창고, 목욕탕, 리발소, 세탁소 등 공동 시설들의 건설을 끝내기로 하였는바 조합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이 건설 사업의 선두에 나섰던 것이다.

조합 민청 위원회는 이런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장차의 보다 큰 농촌 도시 건설은 지금의 건설 작업반 동무들의 기능 수준을 훨씬 높일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조합 민청 위원회는 조합 관리 위원회와 협의 밑에 건설 작업반의 각 조별로 되는 ,경험 교환회도 조직하고 있으며 일부 동무들을 딴 조합에 보내여 그 조합의 문화 주택 건설 형편을 견학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 민청 위원회는 건설된 문화 주택들과 공동 시설들을 원만히 리용하며 효과적으로 리용케 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문화 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알뜰한 새집 내부를 어떻게 미화하며 장치할 것인가, 집 정원엔 어떤 꽃밭을 만들며 집 주위엔 어떤 과수 나무를 심을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를 놓고 젊은 조합원들끼리 담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서로 설계도를 작성하여 토론하고 있다.

이제 가까운 장래에 남칠'벌 밤모로 재'등 우에는 문화적이고 화려한 농촌 소도시가 일어설 것이다. 이것은 남칠'벌 력사에서의 하나의 위대한 변혁이다.

윤 세 용




오늘 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가르켜 20세기의 야만, 두발 가진 짐승이라고 한다. 력사적으로 침략과 살인과 략탈을 일삼았으며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온갖 야수적 만행을 다하고 있는 미제 살인귀들 보다 더 흉악한 인간 백정들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들은 지금으로 부터 34년전 평남도 순안면 원일리에서 미국 선교사 허시모라는 자가 떨어진 사과를 주었다는《죄》로 조선 소년 김 명섭의 량볼에 청강수로《도적》이라고 새긴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느님의 선택 받은 인종》으로 자처하는 미국인이 저지른 이 몸서리치는 죄행을 한낱 예'이야기로 회상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저리다.

오늘도 허시모의 후손들이, 인간 살륙의《전통》을 그대로 물려 받은 악귀들이 우리 조국 남쪽 땅에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닥치는 대로 참살하고 있거늘 어찌 수십년 전 일이라 하여 예'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겠는가!

오랜 예'날도 아닌 바로 지난 전쟁에서 미제 살인귀들이 감행한 극악한 만행이 골수에 사무쳐 한시도 잊을 수 없거늘 어찌 야수들에게 향한 우리의 저주와 분노의 불길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실로 미제 침략 군대는 지난 전쟁에서《조선의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그것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죄다 죽여 버리라!》고 한 미국 장군들의 범죄적 명령 그대로 조선 인민을 대량 학살하였다.

살인귀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일시적으로 기여 들었을 때에도 우리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총살, 타살, 교살하였으며 지어는 부녀자의 젖을 짜르며 눈알을 파내며 불에 태워 죽이며 산채로 매장까지 하였다.

정전 후 미제 침략 군대는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남조선 인민에 대하여 살인, 강탈, 릉욕, 등 형용할 수 없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놈들은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민을 폭격 련습의 목표물로 선택하고 폭탄을 떨구어 죽였으며 송유관에서 새여 땅바닥에 흐른 석유를 받아 담은 부인을 집까지 쫓아 가서 그 석유로 집에 불을 달아 가족 여섯을 태워 죽였다.

1955년 9월 3일 경기도 양주군 백성면에서는 미군 제 7사단 소속 미국 병사가 임신 10개월이 된 부인 전 보배를 릉욕하려다가 응하지 않는다 하여 칼로 배를 질러 즉사케 하였다.

서울 청량리 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군 제 72 헌병대 소속 미군 헌병 딕슨은 동 역 운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조선인 로동자 리 경석에게 씨름을 하자고 강요하여 나중에 지게 되자《조선 사람에게 진 것이 분하다》고 권총으로 리 경석의 복부를 쏘아 참살하였다.

이 얼마나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일인가!

실로 미제 침략 군대가 남조선에 기여 든 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그 어느 하루도 무고한 조선 인민이 미군에 의하여 살륙당하고 모욕 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인간 백정들의 이 가증한 살인 행위는 미제의 극동 침략 본부인《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끌어 들인 후 더욱 빈번하며 잔인하여 지고 있다.

우리 인민의 전 민족적 격분과 규탄을 받은 파주 사건 이후에만도 미국 침략군의 야수적 만행 사건은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

횡포 무도한 미제 살인귀들은 늙은이, 어린이 할것 없이 갖은 악착한 방법으로 참살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재산을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고 있다.

1957년 8월 25일에 미군 야만 밀쓰 마틴은 인천시 룡현동에서 자기 동무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는 조 병길 (18세)을 사살하였다.

10월 3일 오전 8시 부산 발 동두천 행 미 군용 렬차 호송원 미군 상사 레이몬드 엘 베일리는 학교로 가고 있는 금릉 중학교 학생 송 중원 등 5명에 대하여 총을 발사하여 전기 송 중원을 참살하였다.

장상만 하여도 우리들의 가

슴에 증오의 불'길이 솟아 오르는 이런 저주할 만행이 바로 남조선에 대한 《원조》와 《자선》을 떠벌이는 미국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저질러 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살인귀들의 인간 도살의 희생물이 되며 기아에 허덕이며 시시 각각으로 닥쳐 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처참한 사실을 량심 있는 조선 사람치고 그 누가 묵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살인자들의 죄행을 용서할 수는 없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조국 방방 곡곡에서는 미제 침략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반대 항의하는 민족적 분노의 함성이 노도와 같이 일어 나고 있다.

김천시 부근 인민들은 살인귀에게 귀중한 목숨을 빼앗긴 송 중원 학생의 피 흐르는 시체를 안고 시위를 단행하였다.

백주에 거리 한 복판에서 미국놈들에게 아들 딸을 빼앗긴 부모들이, 자기 안해와 가족을 학살 당한 남편과 친척들이 치미는 분노를 살인범에 대한 처단과 미군 철퇴를 웨치고 있다.

남조선 신문들까지도 미군이 감행하는 무차별 학살 행위를 규탄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군의 만행에 대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는 바야흐로 폭발 직전에 다달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군의 몸서리 치는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살인귀들의 만행으로 부터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살인자들의 집단인 미국 강점군을 우리 강토에서 물러 가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다.

미국 침략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온갖 불행과 재난과 억울한 죽음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나 미제 강점자들과 그에 아부하는 리 승만 도배는 범죄자들을 처단 제지할 대신에 살인자들을 비호하면서 어리석은 기만적 술책으로써 인민들의 반미 감정을 회유 무마하려고 흉모하고 있다.

리 승만 도배의 《주미 대사》 량 유찬은 송 중원을 학살한 김천 사건 같은 것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 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였으며 괴뢰 정부 《외무부 장관》로 정환은 《미국에 감사할줄 알아야 하며 미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뻔뻔스럽게도 떠버렸다.

더우기 남조선 강점 미제 살인귀들의 괴수인 《유엔군 사령관》렘커는 10월 11일 서울 주재 외국 기자와의 회견에서 조선 인민을 《조직적인 절도단》이라고 모욕하면서 이를 체포하지 않는다고 도리혀 괴뢰 경찰을 나무랬으며 미군이 저지른 범죄를 조선 인민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다.

이 얼마나 철면피한 망발인가,

한편 미국 딸라에 오장 륙부가 썩은 리 승만 도배는 남조선 인민들이 흘리고 있는 귀중한 피의 대'가로 소위 《한미 행정 협정》의 체결을 흥정함으로써 미군 철퇴 대신에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그의 졸개인 리 승만 도배의 그 어떠한 술책도 살인귀들에게로 향한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민족적 분노의 불'길을 꺼버릴 수 없으며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피할 수는 없다.

미제의 만행과 술책이 우심하면 할수록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항거의 불'길을 더욱 높이 쳐들것이며 살인귀들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물러 가게 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력사적으로 하나인 강토에서 한 가족처럼 살아 온 우리 민족의 력사는 우리 조국의 자유 독립과 유구한 력사와 아름다운 도덕을 파괴 말살하려는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선렬들의 애국적 투쟁의 전통으로 빛나고 있다.

반 세기에 걸치는 야만적 일제 통치의 총검과 감옥도 조선 인민의 불굴의 투쟁을 막지 못하였으며 독립과 자유와 민족적 영예를 위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민족 정신을 꺾을 수 없었다.

애국적 혁명 전통에 빛나는 영웅적 민족의 젊은 세대들인 우리들 조선 청년들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가르키는 승리와 영광의 길에서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바쳐 싸울 것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이여! 민족적 영예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물러 가게 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총 궐기하자!

한 창 수

# 궁지에 빠진 미국의 《힘의 립장》

박 문 성

9월 17일부터 뉴욕에서 유엔 총회 제 12차 회의가 열리였다.

회의는 오늘날 제국주의 렬강의 《힘의 립장에 선》 침략적 대외 정책이 날로 더욱 궁지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론거가 일부 서방 국가 대표들 속에서까지 불만을 불러 일으킨 것, 그리고 애급, 예멘 등 확고하게 독립을 고수하는 아랍 국가들과 함께 바그다드 조약이나 기타의 조약과 협정들에 의하여 미국에 얽매여 있는 아랍 국가들도 다 같이 중근동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규탄 배격하고 씨리아를 견결히 지지하여 나선 것은 바로 그것을 실증한다.

유엔 제 12차 총회의 개막을 며칠 앞두고 미국이 제멋대로 유엔 특별 총회를 소집하여 소위 《웽그리야 문제》를 토의케 한데서 벌써 명백히 되였던 바와 같이 미국 침략 계층은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일대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며 현하 유엔이 당면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는 금번 총회가 주의를 돌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책동은 파탄되였다.

일반적 정치 문제 토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의 토론의 초점으로 된 것은 《웽그리야 문제》나 또는 미국 지배층이 날조하여 낸 쏘련의 그 어떠한 《침략 행동》에 관한 문제는 결코 아니였고 세계 평화의 공고화와 혈연적으로 관련된 문제들 즉 군비 축소, 핵무기 시험의 중지, 중근동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만행, 식민주의의 폐기, 집단 안전 체계의 확립 등에 관한 문제들이였다.

쏘련은 이번 총회에서도 《국가들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선언》 초안, 《군비 축소의 부분적 조치에 관한 쏘련 정부의 비망록》, 《국제 관리 하에서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을 중지할 데 관한 선언》초안,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질 데 대한 결의문》 초안 등 구체적 제안들을 제출하면서 제반 국제 문제들을 평화 위업의 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하려는 진지한 성의를 표시하였다.

쏘련 대표단이 제출한 제안들은 사실상 총회의 사업 방향을 규정하는 리정표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개막되여 일반적 정치 문제 토의가 시작되자 선수를 써서 미국이 의도하는 바 대로 총회의 사업 방향을 규정해 놓으려는 조갑에 사로잡혀 누구보다도 먼저 9월 19일에 연단에 뛰여 올라간 미국무 장관 덜레스는 하등의 새로운 제안도 내 놓음이 없이 다만 상례에 따라 쏘련을 비방하는 독설을 늘어 놓았다. 그리고 그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요컨대 군비 축소가 아니라 군비 경쟁의 강화에 있으며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축적에 있으며 침략적 군사 블럭의 강화에 있다는 듯이 떠버리면서 핵무기가 《자유 세계의 방위》에 필요하며 핵무기 시험 금지가 서방 국가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는 괴상한 론조를 내 놓았다. 미국의 이와 같은 황당 무계한 론조는 사실상 그의 서방 동료국들의 대표들 속에서까지 랭소를 자아내였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과 영국의 부르죠아 신문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부르죠아 신문 《뉴욕 헤랄드 트리뷴》은 《군비 축소 문제에서 미국의 론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서구라파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라고 쓰고 있으며 《크리스챤 싸이엔스 모니터》지는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한 쏘련의 제안 특히 핵무기 시험 중지에 대한 쏘련의 제안이 《중립 국가들과 일부 서방 국가들에서 현저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국 신문 《만체스터 가디안》은 쏘련의 제안을 반대한 영국 외상 로이드의 연설을 《낡아 빠진 허무 맹랑한 론거의 반복》이라고 비난하였다.

군비 축소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중근동 문제에서도 미국의 외교는 많은 대표들의 신랄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미, 영, 불 대표들은 금번 유엔 총회에서 씨리아를 반대하는 미국의 횡폭한 무력 간섭 행동과 오만, 예멘, 알제리아 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영, 불 식민주의자들의 야만적 무력 작전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중근동의 긴장 상태의 책임을 쏘련과 씨리아에 전가시켜 보려고 무진 애를 다 썼다. 바로 이와같은 목적 밑에 미 국무 장관 덜레스는 자기의 연설에서 《쏘련이 중근동을 지배하려 하며 쏘련의 지배하에 들어간 씨리아》가 마치도 그의 린접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듯이 갖은 허구와 날조를 다하여 호통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덜레스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지만 《중근동에 대한 쏘련의 침투》 및 《씨리아로 부터의 위협》에 관한 론조는 바로 아랍 국가 대표들 자신에 의하여 거부 되였으며 규탄 배격 당하였다. 미국이 씨리아를 반대하는 무장 간섭의 도구로 리용하려는 일부 아랍 국가들의 대표들까지 중근동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날날이 폭로 규탄하고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씨리아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나섰다.

례컨대 요르단 대표는 아랍 사람들이 씨리아를 그 어떠한 나라에 대한 위협으로도 간주하지 않으며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위하기 위하여 무장하고 있다고 성명하였으며 10월 2일에 연설한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는 중근동에서 긴장 상태는 오직 《서방 제국주의의 잔재 때문에 야기되였다》고 지적하고 아랍 제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시도를 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락인 찍

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자기의 주권과 독립을 옹호하는 씨리아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레바논 대표도 씨리아가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는 레바논이 씨리아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 하에 미 국무 장관 덜레스는 9월 19일에 일반 연설을 할 때에는 중근동 지역에서의 긴장 상태 조성에 대한 소위《쏘련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금번 총회가 중근동 문제를 총회 의정에 상정시켜 토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허세를 부리였으나 며칠 후에는 부득불 그의 추종국들을 내세워 이번 총회에서 중근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의할 필요는 없고 유엔 밖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케 하는 막뒤 공작을 꾸미지 않으면 안되였던 것이다. 미국 지배층은 총회에 조성된 상술한 분위기로 보아 중근동 문제가 토의된다면 그들 범죄자들 자신이 어김없이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을 두려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실로 아랍 세계에서 씨리아를 고립시켜 그의 린접 국가들로 하여금 씨리아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감행케하는 방법으로 씨리아에 대한 무장 간섭을 단행하려고 시도하였던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치명적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부르죠아 신문《뉴욕 포스트》는《많은 외교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이젠하워주의는 실패하고 있다》고 썼다. 기타 미국의 여러 출판물들도 최근 중근동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 대외 정책이 직면한 파탄의 위기에 대하여 불안에 쌓인 론조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의 서방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음흉한 기도는 의정 문제 토의에서도 여지 없이 파탄되였다. 식민지 소유 렬강 대표들은 알제리아, 싸이프로스, 서부 이리안 등의 식민지 문제를 이번 총회에서 토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나 총회는 다수표로서 이 문제들을 의정에 상정시켰다.

한편 미국 침략 계층은 이번 총회에서 거수기의 도움으로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은 소위《웽그리야 문제》를 또 다시 총회 의정에 상정시키고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미국의 립장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도리여 명백한 사리를 억지로 뒤집어 엎은 미국 지배층의 그와 같은 행동은 그들의 흉악한 정체를 세계 인민들 앞에 더욱 명백히 폭로하여 놓음으로써 정치 도덕적 패배를 가중하였을 뿐이였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유엔 총회는 오늘날 국제 발전을 좌우하며 그를 추진시키는 결정적 힘은 미국이 추구하는《힘의 립장에 선》정책이 아니라 평화를 념원하는 인민들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로 이와 같이 제국주의 렬강의《힘의 립장에 선》침략적 대외 정책이 날이 갈 수록 더욱 배격 받고 고립되여 미국의 위신이 여지 없이 저락되는 환경 속에서 지금 워싱톤의 지배층들은 극도로 당황하고 초조감에 휩싸여 무엇인가 해 보려고 서두르고 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쏘련이 인공 위성을 발사한 이래 그의 고위 군사 및 과학 고문들과 거의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고 있으며 10월 10일에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에서 인공 위성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러나 서산에 기울어진 해를 끌어 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무엇으로도 날로 더욱 궁지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힘의 립장에 선》정책을 추겨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완성, 세계 최초의 인공 지구 위성의 발사 등에서 론의의 여지 없이 증시된 바와 같이 평화의 성채 쏘련이 현대 과학 무기의 발전 분야에서 결정적으로 미국을 릉가하고 있는 오늘 날에 있어서 미국의《힘의 립장에 선》정책이 쓸모 없는 폐물로 되였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히 알만한 일이다.

때문에 미국의 부르죠아 론평가 랄프맨까지도 오늘 미국의 처지에 대하여《어떤 출로를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 수록 앞길은 더욱 더 막혀진다》라고 쓰고 있다.

인류는 실로 오늘날 이미 세계적 체계로 전변된 사회주의가 날로 더욱 강력 무비하게 장성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압도적 우세를 확충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전쟁을 능히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화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주 려행의 꿈을 현실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그러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은 그가《힘의 립장에 선》정책을 버리고 평화를 위하여 진지한 립장을 취함으로써만 앞날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57년 10월 4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사된 인공 지구 위성은 쏘련이 달성한 위대한 과학적 성과를 세계에 시위하면서 한시간 35분의 속도로 지구의 주위를 계속하여 돌아 가고 있다.

쏘련에서는 1954년부터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움직이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초장 거리 대륙간 탄도 로케트가 성공적으로 시험되였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 지구 위성 실험에 성공한 것은 쏘련이 군사 과학에서 만이 아니라 과학 전반에 걸쳐서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실지로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 나라가《제일》이라고 자랑하던 미국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는 미국에서는 1958년 봄에 가서야 비로소 인공 지구 위성의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뉴욕 타임스》지 기자 설지밴은 미국 사람들은 쏘련이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지구 위성 보다 중량이 8. 9배나 더 무거운 인공 지구 위성을 발사하였다는 것을 알고 놀랬다고 까지 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아이젠하워 마저 울며 겨자 먹기로 10월 9일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로케트 발사가 예견한 점에 도달한 것은 거대한 성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악몽에 사로잡힌 미국 지배층들은《쏘련이 어떻게 하여 자기의 성과의 질과 시간에서 그와 같이 미국을 앞설 수 있었겠는가?》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답을 얻지도 못하며 또 얻을 수도 없다. 위대한 레닌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기술의 모든 기적, 문화의 모든 성과는 전 인민적 재산으로 될 것이다》라는 말이 체현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그런 과학 기술적 성과는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고등 교육 기관들에서 1955년에 미국이 6만명을 내 보낸데 비하여 13만명의 젊은 기사 및 과학 일'군들을 졸업시킨 그런 나라, 또한 멀지 않아 10년 제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게 되는 그런 나라, 과학의 성과가 인민의 복리와 평화의 리념에 복무하는 그런 나라인 쏘련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인공 지구 위성을 하늘로 떠 올려 보낸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꿈으로만 되여 있었고 또 하나의 리론적 가상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쏘베트 과학자들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달 나라로 가는 길은 개척되였으며 아직까지 많은 점에서 비밀이던 우주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 수



있겠끔 해 주었다. <례를 들면 지구 자력의 발생, 기원의 비밀, 우주의 온도와 압력, 공기 밀도 및 공기의 구성을 연구하는 기상학, 지구 전체 표면의 촬영 등등>

실로 쏘베트 과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가장 짧은 기간에 해결하였다.

그러면 인공 지구 위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태양계의 혹성들의 하나(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 (달) 같은 것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인공 지구 위성이라고 불리운다. 태양계의 위성은 모두 27개 즉 지구에 1개 (달) 화성에 2개, 목성에 9개, 토성에 10개, 천성에 4개, 해왕성에 1개가 있는 데 쏘련에서 이번 지구 위성을 발사한 것은 바로 달과 같은 천체를 사람이 만들어서 하늘에 띄워 이것이 지구 주위를 돌게 만들어 놓은 셈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많은 의문을 품게 되는 데 그중 몇가지만 풀어 보자.

인공 지구 위성을 어떻게 하늘로 띄워 보냈는가? — 그것은 로케트탄에 달아서 하늘 높이 900키로 메터까지 올려 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 불변한 높이가 아니며 로케트탄이 미칠 수 있는 거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그러한 높이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계단식 로케트가 리용된다. 례를 들어 다계단식 로케트탄으로 인공 지구 위성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첫단계의 로케트탄의 힘에 의하여 일정한 높이에 미치고 그의 힘이 없어질 무렵엔 다음 로케트의 힘에 의하여 더 올라간다. 그리하여 마지막 로케트의 힘에 의하여 위성은 일정한 고도와 속도를 보장하면서 마지막 로케트의 힘이 없어질 찰나에 로케트로부터 튀여나가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면서 지구의 주위를 돌게 되는 것이다.

인공 지구 위성이 땅에 떨러지지 않고 그대로 지구의 주위를 돌아가는 것은 왜 그런가? — 그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도 그 어디론가 허공 떨러지지 않는 그런 리유와 같다. 물체가 돌아 갈 때 그 운동에 의하여 다른 물체를 잡아 당기는 힘이 생긴다. 바로 이런 원심력 (圓心力) 과 지구가 다른 천체를 잡아 당기는 힘 즉 구심력 (求心力) 간의 균형이 잡힐만한 속도로 인공 지구 위성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은 땅에 떨러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쏘련에서 발사한 인공 지구 위성의 회전 속도는 초속 8천 메터, 시속 2만 8천키로 메터이다.

그것의 크기와 무게는 얼마나 한가?
직경 58쎈지 메터에 무게 83. 6키로그람이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작은 물체를 하늘로 띄우는데 무슨 큰 힘이 들겠는가? 생각할련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무게 1키로 그람의 인공 지구 위성을 그만한 높이에 띄워 보내려면 1천키로 그람의 로케트가 소요된다. 따라서 위성이 크면 클 수록 더욱 크고 강력한 로케트가 요구되는바 지금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 지구 위성을 싣고 간 로케트의 출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의 출력 보다도 더 크다.

쏘련에서 최초로 발사한 인공 지구 위성은 평양의 상공으로도 지나갔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장구한 동안 지구의 주위를 돌 것이라고 한다.

(소 설)

# 새날의 설계자들

박 응 호



(1)

시내'물에 멀숙하게 때를 벗은 돼지들은 시내'가 기슭에 한벌 깔린 풀밭에서 꿀꿀대며 좋아라고 뛰여 다닌다.

매미 우는 소리가 한가로히 들려온다. 재선은 넌짓이 나무에 등을 기대이면서 종이를 펴들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한다. 그는 가끔 책을 번져가며 읽어도 보며 때로는 거게다 연필로 벅벅 줄을 긋기도 한다.

요지음 재선은 축산 기술 크루쇼크원들과 함께 새로운 돈사 건설 도안을 완성하노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마치도 즐거운 공상에 사로 잡힌 사람마냥 아득히 펼쳐 나간 다래'기벌을 바라보는 재선이는 새 생활로 들끓는 새날의 설계도를 보는양 싶었다. 그 속에는 자기 손으로 건설될 현대적 축사도 들어있거니 하고 생각하니 가슴은 분출되는 화산 처럼 희망과 환희로 들끓는다.

문득 학교를 졸업하고 조합으로 진출하던 일이 생각키웠다. 그러자 지난해 고중을 졸업한 후부터 조합에서 한해 남짓이 생활해 온 과정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난다. 무중 어머니의 잔주름이 늘어가는 얼굴이 아련히 떠 올랐다.

전쟁 시기 아버지가 놈들에게 학살된 이래 집안에는 자식이라곤 자기 하나 밖에 없는 터임으로 어머니는 기어이 아들을 대학에 보내 《출세》를 시켜 보려고 꿈 꾸었던 것이다. 그랬던 노릇이 아들의 고집으로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되였다. 더우기 그것이 춘보 령감이 맡아 보던 돼지 시중을 인계 받은 날부터 어머니는 더욱 락심하여 지어는 말도 변변히 하지 않았다. 이것은 비단 어머니뿐이 아니였다. 그가 양돈공이 된 날서부터 마을에는 별아별 소문이 다 떠 돌았고 늙은이들은 돼지 시중을 하는 재선을 볼 때 마다 기어코 한마디씩 빈정대고야 지나갔다.

<흥, 공부한 사람이 저런 망칙한 일을 하다니!>

그럴 때 마다 재선이는 분통이 터졌으나 꿀꺽 참군하였다. 지어는 관리 위원장 리 창규도 재선이가 양돈공을 자원했을 때는 저윽이 놀랜 표정이였다. 그는 재삼 통계원 일을 맡아 보라고 권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선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양돈공이 되였다.

재선이는 부지런히 일하였다. 재선은 여적지 청소 한번 하지 않아 오줌 똥으로 그득찬 세개의 돈사를 깨끗이 쳐내였고 다 허물어져 가는 돈사를 손수 수리하였다. 그런데다 열마리의 모돈들을 자기 손으로 사양하여야 했다. 한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재선은 작업반장 리 종철에게 한사람을 더 부쳐 줄 것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꺽쇄라고 불리우는 고집덩어리 종철은 그 일은 능히 한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파리 같이 잡아떼였다. 그러면서 마치 재선이가 일을 헐하게 하려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였다. 재선이는 부아가 나서 다시는 로력을 더 달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고 그 후로는 더욱 이를 악물고 일하였다. 재선이의 이와 같은 열성은 조합 젊은이들을 움직였다. 재선이를 두고 아주 믿음성 있는 좋은 벗이 생긴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선참으로 작업반장 종철의 딸인 옥순이가 재선이를 도와 나섰다. 그후 십여명의 민청원들이 그뒤를 이어 짬짬이 재선이를 도와 주었다. 과학적인 사양 관리를 통하여 그들은 차츰 축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재선은 민청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민청 초급 단체와 토의 밑에 축산 기술 크루쇼크까지 조직하였다.

하루는 조합 초급당 위원장 순칠이가 돈사를 찾아 왔다. 그는 조합 축산 발전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이를 대대적인 부업 경리로 발전시킬 수 없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였다. 그때로부터 재선은 밤잠을 자지 않고 이 일에 골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축산 작업반을 조직하여 현대적 축사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미 새로운 설비를 갖춘 새 규격식 돈사 설계안을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건 어쩌자구 돼지들을 내몰구 야단이야!>

별안간 쇠된 소리가 났다. 어느새 나타났는지 나무 토막 같은 몸을 뒤로 발딱 제끼면서 작업반장 종철 령감이 고성대질 한다. 퍼르딩딩한 종철의 서슬에 놀랜 재선이는 후닥닥 일어섰다. 돼지들이 채소 밭으로 몰려들어 배추를 먹느라 야단치고 있었다. 재선은 <훠이 훠이!> 소리를 치며 급히 채전으로 달려간다. 이 모양을 바라 보는 종철은 그전 부터 재선의 방자한 태도를 밉살스럽게 생각해 오던 터여서 마침 잘 걸려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종철 로인이 재선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리유가 있었다.

종철 령감은 본래가 이 다래'기벌에서 잔뼈가 굵은 농민이다.

그는 농사 일이라면 그 열성으로 보면 누구도 그와 마주 설 사람이 없으리 만치 근면한 로인이다. 조합은 해마다 그 규모에서나 영농법에서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종철 로인의 생각은 차츰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종철 로인에게는 오랜 농민 생활에서 이루워진 자기 신념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농사란 로력이 많을 수록 좋다는 것과 그 담은 덮어놓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그것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종철 령감은 항상 로력이 없다고 불평했으며 작업반원들을 줄창 일에만 내 몰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셈인지 종철 로인의 제3 작업반은 항상 다른 반보다 농사에서나 문화 생활에서나 뒤떨어졌다. 고중을 나오자 재선이는 종철 로인이 관할하는 돈사로 배치되였다. 재선이는 본래부터 종철 로인의 그 근면성과 자기 개인 일에 대해서는 중뿔난 욕망이 없는 면을 존경했다. 그래 시초에는 그가 하라는 대로 수걱수걱 일을 했다. 그러나 차츰 재선이 눈에는 작업 반장으로서의 종철 로인의 부정면들이 띄이기 시작했다. 우선 로력 조직에서 그러했다. 금년 봄의 일이다. 올해 이 조합에서는 삼십 프로의 랭상모를 수전에 내기로 하고 이에 로력을 집중할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종철 로인은 매개 분조까지도 산산이 분산시켜 잡다한 일에 배치했다. 이것은 항상 그러했다. 때문에 랭상모 관리는 자연 소홀히 되였고 발아도 가장 뒤떨어졌었다. 재선이는 참다 못해 두세번 랭상모 관리에 로력을 집중할 것을 종철 로인에게 제기했다. 그러나 종철 로인은 다른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고 재선이의 정당

한 의견을 우활한 공담에 부쳐 웃으려 들었다. 재선이는 생각다 못해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토론하였다.

즉 3작업반에는 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지 못하는데로부터 적지 않은 로력이 랑비되고 있다는 것과 분조까지 분산시켜 작업을 배치하는 방법은 공동 로력의 우월성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작업반의 락후한 원인이 바로 반장의 낡은 지도 방법에 기인된다는 것을 얘기했다. 재선이의 토론은 관리 간부들과 작업반원들의 지지를 받았었다.

종철은 돼지들을 몰고 오는 재선에게

<채전을 돼지 사료전으로 아는감?>

하며 당장 요정을 낼 듯 주먹을 휘둘으면서 소리 친다. 재선이는 자기가 잘못한 일이고 또한 종철의 성미를 잘 알고 있는 터 임으로 순순이 잘못을 사과하였다. 재선이가 의외에도 머리를 숙이고 빌 붙는 바람에 종철은 벼르던 서슬이 내리며 좀 어리둥절 해 졌다.

그러나 종철은 이런 기회에 단단히 다짐을 받아 두리란 생각으로 재선이가 들고 있는 축산학 책을 눈짓하며 말을 잇는다.

<자네는 일하는 태도가 글렀어! 작업 시간에 돼지들은 내 버려두구 소설책만 읽고 있으니 그게 옳은 일인감?>

<소설책이라구요?>

재선은 축산학 책을 들어 보며 쓰거운 웃음을 짓는다. 워낙 종철은 젊은이들이 전야에서 책 보는 것을 기어코 싫어했다. 그것은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데서이다.

<그리구 또 방목인가 뭔가 하려거든 풀 밭으로나 갈 것이지 왜 이런 물 가에 끌고 다니느냐 말이야!>

<아저씨 오늘은 돼지들에게 목욕을 시키느라 데리구 나왔어요>

<목욕? 이건 무슨 등나발 같은 소리야!>

<돼지들에게두 반드시 위생 관리가 필요 하지요, 그전에두 보시잖았나요,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돼지들도 언제나 깨끗해야 병도 안걸리구 증식률도 높아지지요>

<알기두 잘 안다! 우린 그런걸 몰라두 대대 손손 돼지를 멕여 왔어! 원 돼지 새끼를 떡 빚어 내듯 생각 하는구나!>

<아저씨 두고 보세요, 앞으로 나는 열두마리 이상의 돼지 새끼를 생산할 터이니까요>

<허, 말은 풍년이다. 열두마리 놓으면 네 손에 장을 지지겠다!>

종철은 더 말을 세웠대야 날이 서지 않을 것을 알고 반장이란 위엄을 세워 명령조로 말을 던진다.

<당장 돼지들을 몰아 넣으라구!>

재선이는 더 말할 경황을 잃고 그의 말대로 돼지들 쪽으로 돌아 선다.

<작업 반장이 되면 그때 마음대로 해. 그러나 지금은 안될 걸!>

종철은 무슨 생각에선지 빈정대는 말투로 이런 말을 꺼냈다. 그 서슬에 재선이는 홱 돌아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흥 내가 모를 줄 알고? 뭐 축산 작업반을 조직하겠다구?>

<누가 그런 말을……?>

<이놈! 어느 앞에서 몰으는 척 하구… 초급당 위원장이 거짓말을 할까?>

<아버지!>

언제 왔는지 옥순이가 험악해진 두사람 사이에 들어서며 난감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방금 일하다 말고 달려 온듯 날신한 키에 귀인성스러운 얼굴을 한 옥순이의 례사롭고 살뜰해 보이는 눈엔 서글픈 빛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두 근거 없이 그게 무슨 말씀에요?>

아버지를 나무래는 옥순에게는 어딘가 남몰래 간직된 녹녹치 않은 강기가 엿보였다. 옥순이는 미안스러워서 어정비정 재선이의 낯빛을 살핀다.

<너는 왜 일은 않구 휘줄거리며 다니는게냐…>

이렇게 말한 종철이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옥순이는 두해 전에 초중을



졸업한 후 자진하여 농촌에 진출한 처녀였다. 워낙 근면하고 연구심이 많은 옥순이는 모든 일에서 남 보다 갑절의 능률을 내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하는 처녀이다.

<나쁘게 생각지 말아요>

하며 재선이의 얼굴을 살피는 옥순이의 쌍가풀진 두 눈은 "아버지 성미가 그런걸 용서해요"라고 말하고 있음을 재선은 읽을 수 있었다. 재선이는 심두렁한 얼굴 표정으로 돌아 선다. 종철은 흥 하고 코 웃음을 남기고 채전 쪽으로 걸어 간다.

<재선 동무!>

옥순이는 이렇게 재선이를 부르며 그 곁으로 달려간다.

<관리 위원장 동무가 불러요. 오늘 저녁 조합원 총회에서 뭘 취급하는지 알아요?>

<……… >

<어디 마쳐 봐요>

옥순이는 기쁜 얼굴 표정으로 상가풀진 눈을 할기죽 하였다.

<우리 새 돈사 설계안을 비준하고 새 축산 작업반을 조직한대요!>

<정말이요?>

그 말에 재선이는 우울하던 기분을 깡그리 잊고 되 묻는다. 옥순이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우며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2)

그날 밤 축산 작업반을 새로 조직 하는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재선이와 옥순이는 흩어지는 조합원들 속을 빠져 나왔다. 장마'날이 번쩍 개이고 놋색 달이 동령에서 솟아 올라 사방은 낮같이 휘영청 밝다. 검정 치마에 흰 모시 적삼을 얌전하게 차려 입은 옥순은 재선이와 걷기가 어쩐지 쑥스럽기만 했다. 그들은 어깨를 가즈런히 하고 키를 다투며 높게 솟은 관리 위원회 앞 뽀뿌라 나무 옆으로 빠져 나와 시내'가 버들 숲 속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달빛이 시내'물에 반짝이고 세모세가 깔린 반석 우에 나란히 앉았다. 옥순이는 재선이의 상냥스러운 얼굴이 눈에 띄일 때 마다 공연히 마음이 설렁 거렸다. 재선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알지 못할 피로와 가날픈 흥분이 그의 정신을 휩싸고 돌았다. 그들은 여적지 하고 싶었던 말이 태산 같았으나 진작 마주 앉아 보니 그 많던 말들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도무지 머리에 떠 오르지 않는다. 재선이가 먼저 말을 부친다.

<아버지가 또 반대해 나섰는데 겁나지 않소?>

<안…>

옥순이는 머리를 흔든다. 한동안 다시 말이 끊어지고 다만 맑은 시내'물 소리만이 조용히 귀'전을 두드린다.

어디선가 간간이 밤'새 우는 소리가 호르륵 호르륵 들려 온다.

<힘껏 해 보자요>

재선이가 두팔을 뒤로 짚으며 희망찬 어조로 말한다.

<…이젠 반장이 됐군요>

옥순이는 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속삭이듯 말을 잇는다. 언제나 그의 웃는 양은 입 모습이 귀엽게 보였다.

<우리가 제출한 설계안이 그대로 통과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초급 단체 위원회의 힘이 컸소, 새 축사 건설은 우리 민청에서 맡겠다고 할 땐 정말 만세라도 부르구 싶었댔어>

<아버지가 로력을 떼 줄 수 없다고 또 반대해 나설 땐 정말……>

<나도 그건 각오 했드랬지만 그렇게 또 쉽게 로력 문제가 해결 될 줄은 정말 몰랐소. 우리 관리 위원회는 정말 훌륭한 지도부야>

<새 작업반 로력 문제 때문에 1주일을 토의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정보를 다루는 건 국영 농장의 노루마래요. 그걸 보면 우리 조합에선 반 정보 밖에 더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린 여유 로력 열 여섯명을 가진 셈이에요. 이건 과학적인 산출이니까 아버지두 더는 고집을 세우지 못한 거죠 뭐>

재선이는 무엇인가 생각에 잠겼다가

좀 심드렁한 어조로 말을 잇는다.

<아버지는 저를 욕하시지? 버릇 없는 놈이라구!>

<그런 말은 왜 갑자기……>

<아버지를 괴롭히고만 있는 것 같애서……>

<조합을 위해선 할 수 없죠……>

옥순이는 어쩐지 부끄러운 말투로 그러나 똑똑히 대답을 한다.

<그래두 아버지의 기분을 상케하지 않구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

<…… >

옥순이는 재선이의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숨어 있음을 감촉하자 별안간 얼굴이 화끈 달아 올음을 느끼고 그만 고개를 푹 숙이며 저고리 고름을 만지작 거린다.

<옥순 동무 보라요, 저 아늑히 깃들어 앉은 봉긋 봉긋한 언덕 배기 잔 산들에는 과수원과 상전 그리고 목장을 건설하구 저 앞으로 펼쳐저 내린 다래'기 벌은 포전을 정리해서 농사를 기계화 하잔 말이요•그리구 우리 부락은 계획에 의해 문화적인 부락으로 건설하구…… 얼마나 황홀한 우리의 앞날이요>

재선은 시를 읊듯 이런 말을 하면서 황홀한 얼굴로 무연한 앞 벌을 바라본다.

<새날의 설계가 시작되요>

하며 옥순이도 재선의 시선을 뒤좇는다. 나서 자란 이 고향 산천은 다른데는 다시 있을듯 싶지 않게 그들 눈에는 정들어 보였다.

영롱한 달 빛은 포근히 잠들어 가는 대지 우에 찬연히 비치고 있다.

(3)

여름이 지나고 어느듯 새 가을이 돌아 왔다.

아침 해가 새로 건설된 돈사들이 줄줄이 자리 잡고 앉은 솔밭 우로 찬란히 떠 오른다.

새 돈사를 이곳 양지 바른 언덕에 건설한지도 벌써 두달이 지났다.

돈사에서 나온 재선이는 넌짓이 두 손을 허리에 얹으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해 놓은 규격 돈사를 휘 둘러본다.

돈사에는 유들유들한 돼지들이 칸칸마다 들어 찼고 그것들이 꿀꿀대는 소리는 골짝이에 울려 더욱 요란스러웠다.

<뭘 그리 바라 보시나요?>

돼지 여물을 주고 난 옥순이가 재선의 옆을 지나다 하는 말이다. 새'하얀 작업복을 입은 옥순이의 모습은 눈부신 태양 광선에 반사되어 더욱 예쁘장스러웠다.

<우리가 해 놓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댔소>

<꿈 같애요>

하며 옥순이는 무춤 걸음을 멈추고 흥분에 가슴을 설레이는 이글이글한 두 눈초리로 축사를 바라본다.

<저기 분만실과 위생실 격리실을 짓을때 일 생각나시나요?>

<동무의 아버지가 야단치던 일 말이지요>

<그것두 이젠 옛말이 됐어요>

<그땐 참 난처했드랬소. 조상 대대루 그런집 안 짓구두 돼지를 멕여 왔다구 막 기를 쓰며 대들었지……>

<요새 조합의 늙은이들은 이젠 재선 동무를 칭찬해요. 공부한 사람이 다르다구요. 그리구는 모두가 하는 말이 그새 분만한 돼지는 도합 설흔 두마리인 데 여적지 한마리도 죽지 않았으니 신기한 일이라구 호호……>

옥순이는 즐거운듯 웃는다. 재선이도 싱긋 웃으며 말을 잇는다.

<앞으로는 더 신기한 일을 보실거요. 난 이제 소나 돼지들을 모두 방목할 계획이요. 그러면 20% 이상의 가축을 현재의 로력으로 넉넉히 더 사양할 수 있지요. 이건 네개의 륜환식 방목지만 조성하면 가능하거든! 그래 이 언덕을 중심으로 저기 샘터와 그 옆 언덕들을 모두 방목지로 할 계획이요>



이때 7호 돈사에서 홀 몸으로 사는 강 신열 아주머니가 <반장 동무! 7호가 분만을 할려는가 바요!>하고 다급히 소리친다. 그 바람에 재선이와 옥순이들은 급히 그리로 달려간다.

씨비리 백색종은 옆으로 누워 몹씨 앓는 소리를 내며 끄릉댄다.

<옥순 동무 분만이요! 준비를…>

재선이가 급히 소리친다. 옥순은 얼른 위생실로 달려가더니 대야며 고무 장갑이며 소독약들을 한아름에 안고 돌아온다.

재선이와 옥순이는 익은 솜씨로 분만 준비를 갖춘다. 분만이 시작된다.

이윽고 분만실에서는 옥순의 흥분과 기쁨이 뒤엉킨 말소리가 퉁겨 나온다.

이때에 배추 가을을 떠나는 부대 로력 늙은이들이 두세두세 하며 언덕을 넘어온다. 종철이도 그 속에 섞여있다. 그들이 돈사 앞을 지나는데 강 신열 아주머니가 무어라 소리치며 퉁겨 나오듯 달려 나오며

<반장님, 지금 일곱 마리째에요!> 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던진다.

그바람에 늙은이들은<무엇?>하며 꾸역 꾸역 돈사께로 모여든다. 강 신열아주머니는 발에 불이 달은 사람 처럼 연성 들락 날락하며<여덟 마리째요> <아홉 마리째요> 나중에는<열 네마리를 놓았소> 하고 정신 나간 사람 처럼 고아댄다.

<웬 꿈같은 소릴!>

종철은 강 신열 아주머니가 자기들을 골리는 줄로만 알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돼지는 분명히 열네마리를 놓았음을 목격한 늙은이들은 헤— 하고 입들을 벌린다. 그러나 종철이만은 암만 해두 믿어지지 않는듯 어정 어정 우리 안에까지 들어가 방금 받아낸 비등대는 돼지 새끼 한마리 한마리를 손 꼬락으로 꼭 꼭 짚어가며 세여본다. 분명히 열네말이다.

<흥!>

종철은 좀 놀낸 기색을 한다.

어느새 알렸든지 강 신열 아주머니가 치마 바람을 대구 일쿠며 초급당 위원장, 관리 위원장을 데려왔다.

돼지가 열네마리를 놓아 보기는 부락이 생긴 후 이번이 처음인지라 사람들이 경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였다. 이것은



재선이가 선진 가축 증식 방법인 다산 종 씨비리 종에다 우량종 바쿠샤 두마리를 반복 교미시킨 결과에 얻어진 수확이였다. 종철은 아까부터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 전날 재선이가 열두마리 이상의 돼지 새끼를 생산하겠다고 하던 말이 이제서야 확실한 근거를 가진 말임을 깨달았다.

이때 관리 위원장이

〈재선이 수고 했네!〉

하며 재선이의 손을 덥석 쥐더니

〈재선이 기뻐하게, 자네가 소원하든 축산 기술 강습에 참가 하라는 통지가 왔네〉라고 한다.

재선은 흘깃 옥순이를 돌아 본다.

옥순이도 기쁨에 넘친 얼굴이나 말을 못하고 생긋 웃어 보인다.

〈열심히 배우고 오겠습니다.〉

재선이는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맹세조로 힘있게 말하였다.

여적지 묵묵히 서 있던 종철은 부드러운 말투로 재선에게 말을 건다.

〈재선이! 자네가 이겼네!… 나두 이젠 좀 공불 해야 겠네!〉

〈아저씨!〉

재선이는 감격한 어조로 종철이의 팟팟한 손을 두손으로 잡으며 다정스럽게 불렀다. 종철은 자식을 어루만지듯 한 손으로 그의 넓직한 어깨를 쓰다듬는다.

## 〈신 간 안 내〉

### 레닌의 청 소년 시절

4×6판 286페지

이 중편 소설은 레닌의 청 소년 시절을 취급한 작품이다. 소설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윌로쟈 울리야노브가 라틴어 시험을 받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미래의 위대한 혁명가이며 전세계 로동 계급의 수령인 레닌이 어떻게 공부하였으며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서사시적 중편 소설이다.

이 책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기념하여 번역 출판된다.

### 혁명적 경각성은 혁명의 무기

국반절 80페지

이 책은 우리 혁명의 원쑤들이 감행하는 간첩, 파괴, 암해, 공작을 적발 처단하기 위하여 싸우는 청년들의 경각성 높은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책이다.

—민주 청년사 발행—

편집 위원 김 학 연 (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십
양 동 섭 조 채 헌 현 영 호

청년생활 제 11 호 1957년 11월 5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11월 10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5 원) ㄱ—40673 50,000부



# 오 락

## 사람 나르기와 한발 뛰기

(실외 오락)

**1. 유희 조직**

유희자들을 같은 수의 두 편으로 나누고 각각 2렬 횡대로 만든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유희장 및 유희자들의 배치는 그림과 같다.

**3. 유희 방법**

① 준비 신호에 의하여 각 편의 후렬 1번은 전렬 1번의 량 어깨에 팔을 올려 놓고 출발선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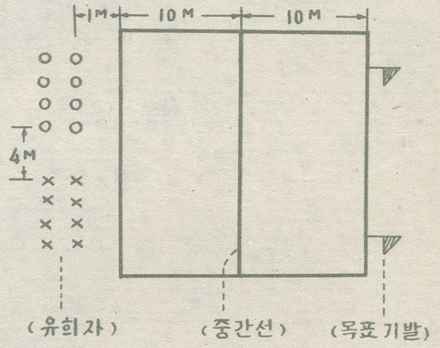
② 지도자의 출발 신호에 의하여 처음에는 왼 다리를 수평으로 굽혀 들고 바른 다리로 중간선까지 뛰여 가고 다음 목표 기'발까지는 오른 다리를 수평으로 굽혀 들고 왼다리로 뛰여 간다.

③ 목표 기'발에 도착하면 각 편의 전렬 1번은 후렬 1번을 업고 중간선까지 달려 가서 여기에서 바꾸어 업고 출발선에 도착하여 다음 유희자에게 인계한다. 인계 받은 유희자는 전자와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 실시하여 먼저 끝난 편이 이기게 된다.

**4. 주의할 점**

① 유희자들이 다리를 굽혀 들고 뛰여 전진할 때는 임의의 동작으로 실시하게 할 것.

② 유희장 거리는 유희자들의 체력을 고려하여 변화시킬 것.




## 10호 "수풀이" 회답

(1+2) : 3=1

12 : 3 : 4=1

[(1+2)×3−4] : 5=1

(1×2+3−4+5) : 6=1

{[(1+2)×3−4] : 5+6} : 7=1

[(1+2) : 3×4+5+6−7] : 8=1

(1×2+3+4−5+6+7−8) : 9=1



강원도 고산군 위남 농업 협동 조합내
청년들의 저수지 제방 공사.